

바다는 또 하나의 영토

해외 수산 자원 확보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KOFA 이런 일을 합니다

- ▶ 해외수산 자원 조사, 개발, 생산 및 수출 지원
- ▶ 연안국 및 국제(수산)기구와의 입어 교섭·보존 조치 체결
- ▶ 원양산업(원양어업, 합작어업, 운반, 가공, 유통, 양식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촉진
- ▶ 원양산업 통계 작성 및 관리(통계 연보 발간)
- ▶ 원양수산물 소비촉진 등 원양산업 홍보(원양 뉴스 및 원양산업지 발간)
- ▶ 원양산업 경영 개선을 위한 지도 및 관리
- ▶ 해외수산협력센터 지원 및 운영

특수
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Korea Overseas Fisheries Association



원양산업

제 1171 호
(2024년 7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비매출)

Contents



협회소식

- 협회, 수산단체 대표자 국회 초청 간담회 참석 / 4
- 협회, 한국농어촌공사와 동반성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5
- 협회장, 청해부대 파병 장병 환송 참석 / 6
- 협회, 부산원양협의회 개최 / 6
- 협회,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 참석 / 7
-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이행점검 회의 참석/7
- 포클랜드 대방사 선박점검팀 방한 업무협약 / 8
- 협회, 수산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 8
- 협회장, 원양산업 재도약 위해 노력 / 9
- 원양산업 재도약의 시동 / 12
- 명태 - 생물 중 이름이 가장 많아 / 15



이달의 요리

- 일식 메로구이 / 16



해외수산물정보

■ 국제유가 동향

- 7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766달러 / 17

■ 참치어업 동향

- 사조, 국내 최초로 사회적책임평가(SRA) 실시 / 18

- 방콕 6월 말 가다랑어 가격, 톤당 1,600달러 / 19
- 중서부태평양 5월 어획량, 약 14만 톤 / 20
- 에콰도르 가다랑어, 태국산보다 저렴하게 판매 / 21
-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전월 대비 약 6% 상승 / 21
- 日 냉동 참치류 5월 수입 통계 발표 / 22
- 남방다랑어 日 가격, 전년도 대비 40% 급락 / 23
- 日 냉동 눈다랑어 5월 수입가격, kg당 736엔 / 23
- 美 SIMP 통한 수산물 수입, 절반이 참치 / 24
- 美-태평양 국가, 24년 美 선단 접근 합의 / 24
- EU 24년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량, 약 11만 톤 / 25
- 태국 어업법 개정, 태국-EU FTA에 영향 / 26
- EU, 2024년 1분기 냉동 참치 원어 수입 급증 / 27
- 태국, 세계 참치 통조림 수출량 1위 달성 / 27
- FAO “참치, 2022년 전 세계 최다 섭취 어종” / 28
- 서태평양 위원회, 외국 참치 덤핑에 우려 표명 / 29
- 베트남 참치 수출, 24년 상반기 20% 증가 예상 / 30
- 인도네시아, 전 세계 참치 생산량의 18% 차지 / 31
- 러시아, 베트남 참치 수입국 상위 5위권 진입 / 31
- NOAA “참다랑어, 지속 가능 어종으로 변화” / 32
- 日,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 130% 증가 제안 / 32
- 타이유니온, 23년 MSC 인증 어업 조달 8% 증가 / 33
- 日 대형 가공업체, 식당용 식물성 '참치회' 출시 / 33
- 태평양 도서국, 전자모니터링 한계 지적 / 34
- 대만 수산청, 6월 12일부터 참다랑어 조업 중단 / 34

원양산업
제1171호

발행
등록번호

2024년 7월 15일
1981년 8월 27일
서울라-9183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편집인

김영규

Contents

■ 오징어어업 동향

- 아르헨, 일렉스 오징어 조업 종료 가능성 제기 / 35
- 일렉스 오징어, 5월 말까지 약 14만 톤 어획 / 35
- 페루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시장 불안 증가 / 36
- 아르헨 4월 수산물 수출, 일렉스 붐으로 급증 / 36
- 페루, IUU 퇴차오징어어업 보호 목적 긴급법령 마련 / 37
- 日, '갈고리흰오징어' 활용 가능성 모색 / 37

■ 명태어업 동향

- 러 2024년 명태 TAC, 약 229만 톤 / 38
- 러 국내 명태 H&G 도매 가격 상승 / 39
- 명태, 대구, 넙치가 러시아 북극으로 이동 / 39
- 러시아 명태 수출 가격, 6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 / 40
- 중국 시장에 대한 러시아 명태 공급 증가 예정 / 41
- 러, 현재 어선 73척 건조 중 / 41
- RFC "명태 연육 생산, 2028년 16만톤 예상" / 42
- 러,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증명서 "전자" 문서화 / 42
- 바렌츠해 대구 2025년 쿼터, 31% 감소 / 43
- 러, 추코트카 수역에서 한국인 선원 구조 / 43
- 러시아, 영해 밖 어업권 선언 방법 마련 / 44

■ 꽂치어업 동향

- 日 꽂치 공해 어업, 전 선박 8월 10일 출어 / 45
- 日 꽂치 어선, 참치 연승어업 검역화 검증 중 / 46
- 러 연구기관 "꽂치 자원, 3~5년 내 남쿠릴 이동 예상" / 46

■ 각국 수산 동향

- CCAMLR, 베트남과 IUU 어업 방지 협력 방안 제안 / 47

- 러시아, 세계 5위 어업 강국 / 47
- FAO "수산물 소비량 12% 증가 예상" / 48
- 러시아 "중국은 어업분야 전략적 파트너" 표명 / 49
- 러, 전자조업일지 사용자 위한 챗봇 출시 / 49
- 러시아, 정어리 어획량 꾸준히 증가 / 50
- 러 아프리카 과학 탐험대, 연방 정부 지위 획득 / 51
- 러 보건부, 아동 대상 어류 섭취 권장 캠페인 실시 / 51
- 美 5월 수산물 소매 매출, 부진 계속 / 52
- 수입 낚시 미끼를 음식으로 판매한 사건 발생 / 52
- 日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사상 최저치 기록 / 53
- 노르웨이, 러 어선 입항 제한 강화 / 53
- 중국 연어 가격 하락세 지속 / 54
- 美 인신매매 평가, 대만·태국 높은 순위 유지 / 55
- 英, MPA에서 유해 저층 어업 지속 / 55
- 기후로 인한 어류 이동이 문제 일으킬 수 있어 / 56
- 공해 조약이 발효하려면 추가적 비준 필요 / 56



쉬어가는 난

- 오징어 - 조성식 / 57



국내 수산 정보

- 6월 오징어 국내 동향 / 58
- 6월 명태 국내 동향 / 60
- 바다의 파수꾼 '옵서버' 모집 / 62
- 제11차 SIOFA 총회, 서울에서 개최 / 62

협회, 수산단체 대표자 국회 초청 간담회 참석 수산정책자금 지원 확대·수산물 소비촉진 지원 방안 등 논의



우리 협회는 7월 2일 '제22대 국회 주요 수산과제 현장에서 듣는다'를 주제로 주최된 수산단체 대표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수산단체 대표자들과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 간 인사 및 수산분야 과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되었다.

국회 측에서는 여기구 농해수위원장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인 송옥주·윤준병·임호선·주철현·문금주·문대림·이병진 의원이 참석하였다.

수산단체 측에서는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물협회, 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한국내수면양식단체연합회, 한국김산업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스마트수산어촌포럼 등의 수산단체가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원양어선 외국인 해기사 승선, 원양선사 세금 감면 제도 도입, 2025년 키리바시 어촌 뉴딜 ODA 사업 추진 등을 건의하였다.

협회, 한국농어촌공사와 동반성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원양산 수산식품 판매·홍보 등 상생협력 도모



우리 협회는 7월 9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동반성장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날 협약식에는 원양협회 신현애 상무와 한국농어촌공사 김자영 어촌수산처장, 동원산업, 사조씨푸드 등 관계자 12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해외협력본부장, 경영지원본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에 따라 협회와 농어촌공사는 올해 명절

부터 공사 임직원 선물에 횃감 참치를 포함하는 등 원양산 수산물 판촉 홍보와 해외 ODA 사업 활성화 등 상호발전을 위하여 협력키로 하였다.

이날 양측은 “세계 먼바다 청정해역에서 선원들의 노고와 헌신으로 생산한 우리 원양수산물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원양산업과 양 기관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협회장, 청해부대 파병 장병 환송 참석

인도양 수역 보호 요청

우리 협회 김영규 회장은 지난 6월 20일 창원시 해군기지사령부를 방문하여 아덴만과 소말리아 수역으로 출정하는 청해부대 제43진 왕건함 부대원들을 환송하였다.

청해부대는 2009년 문무대왕함 파병을 시작으로 아덴만 해역에서 다국적 연합 함대와 해상 안보 작전과 선박 호송 서비스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협회장은 "6.25 전쟁 이후 우리 선원들 각고의 노력으로 얻은 어장인 인도양에서, 원양어선단의

보호 임무를 수행하여 국가 식량 자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라며 협조를 요청하였다.



협회, 부산원양협의회 개최

부산 원양업계 상견례 및 현안 관련 의견 공유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20일 부산 새진주식당에서 부산 원양업계 대표들과 함께 부산원양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 업계 측은 가나마린, 경양수산, 경태, 대해수산, 동남, 동신어업, 동원산업, 동원수산, 동원해사랑, 명성피셔리, 사조산업, 신라교역, 승진수산, 아그네스수산, 원양물산, 코삭교역(이

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경영지원본부장, 부산지부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협회장 및 부산 원양업계 대표들은 지속되는 대내외 환경 변화 및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대응과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협회,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 참석

동원산업 김민호 회장, 아그네스수산 이창화 회장 장관표창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21일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에서 '새로운 시작, 우리의 위대한 항해'를 주제로 개최된 제1회 선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선원노련 위원장·단위노조 위원장, 선주단체 회장, 국제운수노조연맹, 지자체, 학생·교육생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원양업계에서는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아그네스수산, 정일산업, 코삭교역(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경영지원본부장, 부산지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동원산업 김민호 회장, 아그네스수산 이창화 선장이 장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이행점검 회의 참석

개선방안 상반기 이행상황 점검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27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 회의실에서 개최된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 민관 이행점검 제1차 회의'에 참석하였다.

회의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가 주재하였고, 원양산업과,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복지고용

센터, NGO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반기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의 상반기 이행 상황 점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포클랜드 대방사 선박점검팀 방한 업무협의

2024어기 및 포클랜드 현황 등 설명

우리 협회는 지난 6월 18일 협회 대회의실에서 포클랜드 현지 대방사인 드래곤사의 선박점검팀과 업무 협의를 진행하였다.

드래곤사 측에서는 리암 부사장, 나이젤 컨설턴트, 다니엘 DMS 매니저가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 측에서는 해외협력본부장, 해외협력2부장, 송덕현 국장 등이 참석하였다.

드래곤사 측은 2024어기가 성공적인 어기였고, 안전 문제로 인한 기록도 없는 항해였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포클랜드에서 수산청 검사가 점차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기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협회, 수산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원양산업 발전 관련 업계·언론계 의견 공유

우리 협회는 지난 7월 1일 협회 인근 식당에서 수산전문지 기자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 수산전문지 측에서는 농수축산신문, 어민신문, 오션21, 한국농어민신문, 한국수산경제, 한국수산신문, 현대해양(이상 가나다 순)가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및 양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인사와 함께 원양산업 현안 및 시급한 해결 과제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수산전문지 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협회장, 원양산업 재도약 위해 노력

원양어업의 발전은 국가적 이해관계와 일치, 협회는 국가 발전에 기여

1) 한국원양산업협회장 취임 소감

역사와 전통으로 빛나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 회장으로 추대해 주셔서 원양업계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협회 60년 역사 동안 우리 원양어업을 일으켜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공해조업규제, 유가상승 등 조업여건 악화에도 슬기롭게 대처해 온 것은 협회를 중심으로 단합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전통을 이어받아 원양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협회는 업계와 정부의 중간 입장에서 소통하고, 정책을 밀받침하며 업계를 잘 지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전문성을 쌓아 업계와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조직운영과 협회의 위상도 제고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해외수산협력센터도 활성화하고 명예수산물들의 활동을 독려하여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원양노조와도 원활히 소통하여 윈윈하는 어업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현황 및 현안

원양어업은 1957년 인도양 참치연승어선(지남호) 최초 시험조업 실시 이후 수산자원을 100% 해외 연안국 EEZ 및 공해수역에서 조달하며 국민식단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양식, 내수면 제외)의 44%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양대 축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며, 연근해어장의 제한성을 감안해 볼 때 원양어업의 발전은 국가적인 이해관계와도 일치합니다.

원양어업은 국내에서 어획할 수 없거나(참치, 명태, 이빨고기 등) 부족한(오징어, 꽁치, 대구 등) 수산자원을 공급하며 국내 어가의 안정적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작 포함 253척이 16개국에 진출해 바다영토를 확장, 확보하고 있으며, 해외 어장(아시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을 개척해 활동하며 선도적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제무대에서 원양어업 입어국의 지지를 확보하며 우리나라의 국제무대 입지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양업계가 가지고 있는 현안 사항으로서는 선원수급 문제와 어선의 노후화, 연안국 및 국제기구의 규제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등입니다.

3) 구인난을 겪고 있는 해기사 수급 해결 방안

해기사 부족 현상은 OECD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원양어업에서의 해기사 수급난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22학년도 전국 9개 수산계 고교 승선학과 신입생

모집률은 54.9%에 그쳤고 연령별 원양어선 해기사 승선현황은 60세 이상이 26%, 50대가 46%, 40대가 8%, 30대가 1%, 30세 미만인 19%인 상황입니다.

현재의 40대 미만이 기술을 이어받아 선장, 기관장이 되어야 하지만 이어받을 선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30세 미만의 대부분은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대체복무를 위한 승선이며 대체복무 이후 대부분이 재승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승선 해기사의 72%를 차지하는 50~60대가 일시에 빠져나가는 시기가 오면 어장과 어선은 있지만 선원이 없어서 원양어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9개의 수산계 고등학교와 6개의 대학교에서 해기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500여 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졸업생 중 해기면허를 취득하는 비율은 60% 수준이며, 최종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졸업생은 5%에 불과합니다.

우리 협회는 수산계 고교 종합승선실습과정 지원,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 과정 지원 등 국내 선원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선원 부족 및 고령화 현상은 국내 선원 양성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안정적인 선원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해기사를 유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선과 어선을 비교할 때 어선에 비해 상선에 적용되는 협약의 규제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상선의 경우, 선장, 기관장 외의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이 가능하지만, 원양어선에서는 외국인 해기사의 승선이 불가하므로 시급히 외국인 해기사 승선 허용이 필요합니다.

4) 원양어선 안전펀드 추진 실적 및 올해 추진 계획
정부는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 원양어선의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수산발전기금사업(용자사업)으로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 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용자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선령 30년 이상의 노후 원양어선 대체를 위하여 2019년 2월 원양어선안전펀드 조성 및 지원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원양어선 현대화펀드사업은 정부 출자를 통하여 원양어선 현대화 펀드를 조성(850억 원)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선박담보)과 선사부담을 결합하여 특수법인(이하, SPC)을 설립하고 선박을 건조하는 것으로, SPC가 선주가 되어 원양선사와 15년간 장기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선사는 선박운영 수입으로 용선료를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계약 4년차부터 12년간 정부 지원 금액을 상환하면 용선기간 만기인 15년 이후에 소유권이 선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선령이 40년 이상 된 선박 중 국내 조선소 신조가 가능하고 대중성 어종을 공급하는 오징어 채낚기과 꽁치붕수망 업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원양선사의 담보부족과 사업신청 수요부족으로 현재 전업종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약 738억원을 지원하여 2020년에는 2척 건조, 2021년에는 3척의 오징어채낚기 선박이 국내 강남조선소를 통해 건조되어 인도되었으며, 2023년 9월 2척의 트롤선이 중국 황해조선소를 통해 건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7척을 신조 완료하였으며, 피대체선의 평균선령은 42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75억원을 활용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접수가 완료되면 투자심의 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기업건설도, 원양어업 및 연 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6월 중에 사업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선박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5) 연안국 및 국제기구 규제강화 대책 마련

우리 원양어업은 수산자원 관리와 해양환경 보호 를 통한 지속가능한 어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 습니다.

연안국과는 좋은 어장 확보를 위하여 ODA 지원, 자원 평가 공동 연구, 입어국의 수산 투자 및 현지 기여 등을 통한 유리한 입어 조건 확보가 필요합니 다. 또한 합작 등의 협력을 통하여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마련하고 다각적인 사업을 현지화하는 노력 이 필요합니다.

공해어장은 국제수산기구에 선도적인 참여를 통 하여 수산 쿼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야겠습니 다. 우리나라는 23개 국제수산기구(일반 5개, 지역 기구 18개)에 가입해 지속가능한 어업에 적극 협력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쿼터를 배정받아 조업하는 기 구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인도양참 치위원회(IOTC),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남방참다랑어보존위 원회(CCSBT),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 (SPRFMO),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남극해양 생물보존위원회(CCAMLR) 등 8개입니다.

국제수산기구가 실시하고 있는 보존 관련 조치는 대표적으로 자원 평가에 따른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ETP종(멸종위기, 멸종우려종, 보호종) 보호 조치 마련, 읍서버(원양어선 승선, 불법조업을 감

시·감독, 과학조사 수행) 승선 의무 설정, 공해상 승 선 검색, 선박위치 모니터링·통제·감시, 어선등록부 관리 등입니다. 이에 국제수산기구의 규정을 준수하 는 것에서 해외어장자원조사 및 과학적 기여 증대와 더 나은 보존 조치 규정을 제안하며 주요 현안을 선 도하며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 요합니다.

6) 정부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해기사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선박직원법 개정 또는 STCW-F협 약 가입으로 상선과 같이 원양어선에도 외국인 해기 사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동 시에 국내 교육기관에서 배출하는 전문인력들이 국 내어선에 취업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와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어선들을 대체하기 위한 노력으로 원양어선안전펀 드 예산을 확대하여 신조 및 중고선 도입을 원활하 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장확보를 위하여 신어장, 신어구어법, 신어장 조사사업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기존 공해어 장 중 조업이 가능한 해역은 진출 확대 등 장차 규제 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연안국과 정부 간 어업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ODA 등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해외어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국원양산업협회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민간 어업협력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수산인신문 2024년 6월 24일자 수록〉



원양산업 재도약의 시동

도전과 헌신으로 확보한 해외 국가수산자산 유지 필요

최근 원양산업 발전방안을 두고 논의 과정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다. 많은 참석자는 20년 전 논의되던 내용이 지금도 현안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원양산업은 20년 전 모습 그대로 정체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20년이란 세월 동안 모든 사회 경제 문화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원양산업 또한 국내외 어업환경과 법적 제도적 인력 구조적 변화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는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들의 해외수산자산에 대한 보호 및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각종 정책과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조업국의 수용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국민소득 3만불 달성 이후 국민의 의식변화와 산업기술 발전, 출생률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전 산업 분야에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산업구조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늦거나 대처하지 못할 경우, 연근해와 달리 별다른 정책적 재정적 보호장치가 없는 원양산업의 경우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원양산업의 주요 3대 요소인 선원, 선박, 어장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점검하고 재도약

하기 위한 출발점에 대하여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본다.

첫 번째로 전 산업 분야에 대두되고 있는 인력(선원) 문제이다.

오랜 기간 원양어선의 해기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원양 업계는 오션폴리텍 해기사 양성 과정과 수산계 고교 종합승선실습 과정을 통해 국내 해기사양성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질적인 승선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를 보인다. 현재, 2023년 어선분야 오션폴리텍 교육과정 수료생 31명 중 4명만이 승선하고 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 연계된 수산계 고교 종합승선 실습 과정을 통해 배출된 해기사들은 복무 완료 후 대부분 하선하고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원양어선 선장과 기관장 등이 세금 문제 등으로 대만, 필리핀, 중국 등으로 연쇄적 이탈이 증가하여 핵심 조업 기술 유출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다.

원양산업의 해기사 문제는 2015년 원양 노사 간 외국민기관사 1명 승선 관련 법 개정을 합의한 이후 10년 가까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 및 관련 단체, 기관들의 이해 상충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해기사 부족 문제는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우리 사회의 인구구조와 경제 수준 향상에 따른 직업 관 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가온 현실이며, 일본 등 주요 원양 어업국에서도 이런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 더해 NGO 등에서 문제를 제기한 강제노동 문제는 국제사회에 중요 이슈로 논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와 업계 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러한 선원 인력 감소 외에 고령화 문제도 겪고 있어 이는 원양어선의 안전 운항과 조업 생산성에 직접 관계되는 사항으로 향후 원양어업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두 번째로 원양산업의 생산 기반인 원양어선 노후화 문제이다.

2023년 원양어선 허가선 201척 중 선령 31년 이상의 노후선은 전체의 79.6%인 160척이며, 전체 원양어선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참치연승어선 106척 중 31년 이상의 노후선은 무려 94.3%인 100척이다. 또한 1989년 발효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 2030년부터 R22 냉매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 냉매개발과 냉동시설 교체 비용 등으로 관련 어업의 생존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해 원양어선 현대화 안전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선령 30년 이상 된 노후선 대체 건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22척이 건조되었으나, 원양선사의 담보 문제와 업종 특성에 맞지 않는 신조 자금 지원조건 등으로 신조 대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로 해외어장 확보 문제이다.

국제수산기구 및 연안국들은 공해 조업 기회 제한 및 해상전재 규제, 입항전재 의무화, 오피버 커버리지 상향, EM(전자모니터링) 확대 등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자원보유국은 ODA와 현지 투자 확대를 쿼터에 연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는 단순 입어 방식에서 자원국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입어 방식에 대하여 법률적 제도적 지원방안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우리 원양산업의 주요 3대 요소가 직면한 현황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재도약하기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 원양산업은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창업주 세대에서 2~3세대로 교체되면서 원양산업의 재투자에 대한 실효적 의문이 발생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영 부담과 내외국인 선원에 대한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가운데 어업의 불확실성과 채산성은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조업경쟁국들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통해 원양어업 진출을 확대하여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를 추월한 지 오래다. 이에 우선 원양어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원양어선의 정상적인 조업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 원양업계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외국인선원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휴식시간 보장, 선내거주시설 개선, 인권교육 강화, 정기적인 인권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만 등 조업경쟁국보다 모범적인 조업국으로 변



신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정부에서는 우리 원양어선이 법정 해기사 문제로 출항 지연과 선박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외국인해기사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우선 원양노사간 합의한 기관사 1인에 한해서 정부교육기관의 단기 양성과정을 마련하여 국내면허를 취득, 승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원양어선의 인력수급 문제를 전략적으로 검토하고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농어촌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숙련 기능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해 선원취업, 특정활동을 거쳐 거주 및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제도를 원양어업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유능 선장, 기관장들의 대만, 필리핀 등 조업경쟁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고 직업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이상 승선한 원양어선 해기사에 대하여 명인제도를 도입하여 명인해기사에 대하여는 소득세 전액 비과세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원양산업의 생산 기반인 선박에 있어서는 국가 차원에서 필요 해외 수산식량 공급량과 해외어장에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쿼터 등을 감안하여 관련업종에 대한 국가필수어선제도를 도입하여 이들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보다 매력적인 신조 조건으로 노후 어선을 신조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해외어장 확보 문제는 수산자원을 보유한 연안국들의 입어료 외 투자, 물자지원 등 요구사항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연안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확대하

여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적 전환이 불가피한 해외어장의 경우에는 국제적 환경변화에 맞춰 관세제도 등을 보완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으로 관련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 지구적인 급격한 기후변화는 수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부문에 있어서 생태적,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식량안보를 보장하는 원양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비가 필요하다.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정부는 원양업계가 늦지 않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들을 마련하여 원양산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로써 1957년 해외어장 개척 이후 많은 도전과 헌신으로 확보한 소중한 해외 원양어장을 국가수산자산으로 지속 유지해야 한다.

〈한국수산경제 2024년 5월 6일자 수록〉



명태 - 생물 중 이름이 가장 많아

명태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제공

우리나라는 이름 없는 물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미신으로 조선 중기까지 강원 일부 지방을 제외하고 명태를 먹지 않았다. 조선 왕조 개국 250년경에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한 민(閔) 아무개가 명천군(明川郡)을 방문하여 먹게 된 생선이 명태였으나, 이 물고기의 이름이 없다 하여 명천군의 명자와 낚시줄로 잡은 어부의 성인 태(太)를 따서 명태라고 이름을 이어주고 우리나라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고 한다.

고려시대 강원도 사람들은 북쪽 바다에서 잡은 고기라는 뜻에서 북어(北魚)라 하였다. 하지만 서울 이남 각지에서는 동진명태 제품을 북어라고 한다. 이러한 명태를 부르는 말은 관심도를 나타내어 북어 외에도 하나의 대상물에 대해 부르는 이름이 가장 많다. 예를 들면 잡는 방식에 따라 그물로 잡은 명태는 망태(網太), 낚시줄로 잡은 명태는 조태(釣太)라 불렀으며, 잡은 장소에 따라 강원도 연안에서 잡으면 강태(江太), 함경도 연안에서 잡은 작은 명태를 왜태(倭太)라고 불렀고, 강원도 간성군 연해에서 잡은 명태는 간태(桿太)라고 불렀다. 또한 잡히는 시기에 따라, 정월에 잡힌 명태는 일태(一太)로, 2월부터 5월까지 잡히는 명태를 이태, 삼태, 사태, 오태로 불렀으며, 봄에 잡힌 명태는 춘태(春太), 동지 전후로 잡으면 동지받이, 선달에 잡으면 선달받이 등으로 불렀다. 제품의 이름으로 말린 것은 건태(乾太), 얼린 것은 동태(凍太)라 부르며, 생물

상태일 때는 생태, 얼고 녹기를 여러 번 하여 노랗게 말린 황태, 찬바람에 꾸덕꾸덕 반건조한 것은 코다리라 불린다. 명태 새끼의 이름도 애기태, 애태 및 노가리 등으로 여러 가지로 불렀으며, 이외에도 덕장에서 건조하다 날씨가 따뜻해져 물러지면 찢태, 건조대에서 떨어지면 낙태, 하얗게 마르면 백태, 검게 마르면 먹태, 딱딱하게 마르면 깡태, 대가리를 떼고 말리면 무두태, 손상된 명태는 파태로 불리며, 도루묵(은어) 떼가 회유해온 뒤 명태 떼가 따라서 온다고 하여 은어받이라고도 불렀다.

명태는 관혼상제와 굿판에 반드시 올랐으며, 대문 문설주 위에 매달아 집안의 복을 기원하고 자동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닛 안에 보관하기도 하며, 요즘에는 보관 편리 등의 이유로 액막이 명태 인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명태는 기름기가 없고 담백하면서도 영양소가 많다. 또한 포화지방산이 거의 없어 비만을 막고 고혈압을 예방하며 뇌에 필수적인 트립토판, 리진, 시스틴, 티록신, 비타민 A와 D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 명태의 메테오닌, 시스테인 등 함황(含黃) 아미노산이 많아 간을 해독하기에 과음에 좋고 피로, 감기, 몸살, 노인, 환자들에게 보신용으로 효과도 있으며,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눈이 침침할 때 그 증상을 완화 및 회복에 도움이 된다.



일식 메로구이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메로 140g 1팩, 대파 1/4대
- 소스: 간장 4술, 설탕 3술, 맛술 1술, 물 5술, 마늘 1.5쪽
- 양념: 고추장 1큰술, 간장 1큰술, 굴소스 1큰술, 맛술 2큰술, 물엿 2큰술, 설탕 1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생강가루 후추 약간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메로를 해동하면서 마늘을 슬라이스로 편 썰어 놓는다.
 - ② 대파는 채를 썰어 찬물에 담가 아린 맛을 빼고 비율대로 데리야키 소스를 만든다. 시중 데리야키 소스를 사용해도 좋다.
 - ③ 살짝 기름을 두른 팬에 메로와 마늘을 굽다가 중불에 소스를 넣어 졸여 준다.
 - ④ 다 구워지면 접시에 메로와 파채를 곁들여 낸다.
- TIP: 취향에 따라 생강채, 청경채, 양파를 곁들여 먹어도 좋다.



7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766달러

7월 11일 기준 754달러

7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5.55달러, WTI 가격은 82.62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85.40달러를 기록하였다.

7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754달러로 6월 11일(717달러) 대비 약 5%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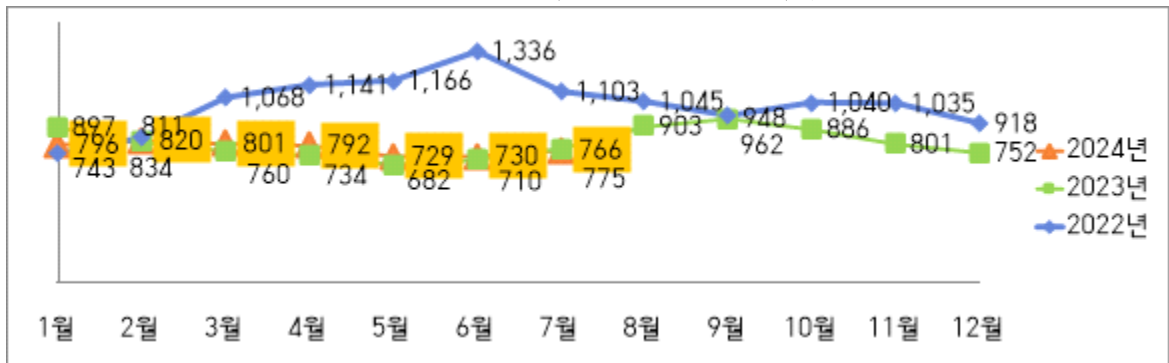
7월 평균(7.1~7.11) 가격은 766달러로 전년 평균(6.3~6.28)인 730달러 대비 약 5% 상승하였다. 전년 7월 평균보다 1% 하락하였고, 전전년 7월과 비교하면 31% 하락하였다. 2024년 평균(1.2~7.11) 가격은 776달러로 전년(1.1~12.29) 평균 대비 3%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균 대비 25% 하락하였다.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국제 유가는 미국 여름 휴가철 석유 수요 증가 전망,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7월 초 미국 주간 원유 재고의 예상치 이상 감소세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대체로 상승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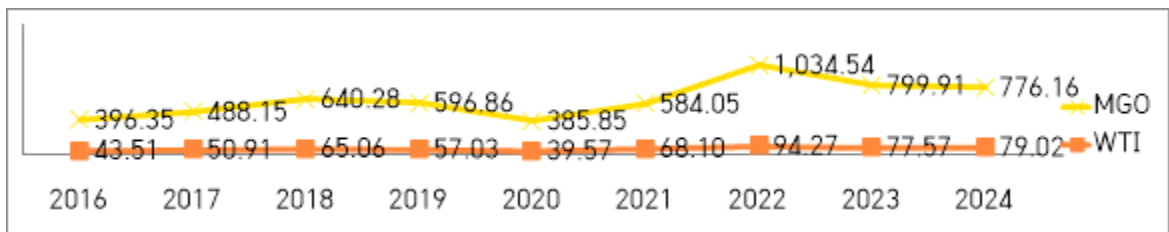
국제 유가는 7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중동 사태 완화 기대감, 중국 원유 수요 회복 둔화 등으로 인하여 하락세를 보인다.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상승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다는 점 또한 유가 하락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2분기에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추진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사조, 국내 최초로 사회적책임평가(SRA) 실시 외국 노동자의 투명성, 노동 기준 및 보호 개선 필요성 조명

사조산업과 NGO 단체 Ocean Outcomes가 참치 연승 조업의 환경 영향을 감축하기 위하여 협력 관계를 확대하였다.

이는 모든 원양어업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투명성, 노동 기준 및 보호 개선 필요성을 조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원양어업에는 5대 원양어업국 중 하나이자 전세계 원양어업의 10%를 차지하는 한국 원양어업 또한 포함된다. 노동 표준을 개선하고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려면 정부, 업계, NGO 및 기타 시민사회 단체 모두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한국의 해양수산부는 현존 국제 인권 표준을 충족시키고 노동자를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수산 기업이 인권실사(HRDD, 인권에 대한 기업 활동의 부정적인 영향 및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 및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관리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공급 사슬에서의 인권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첫 단계를 내딛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국 수산업계의 HRDD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사조산업은 사회적 책임을 보다 폭넓은 지속가능성

목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조산업 및 자회사들은 다량어류를 전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원양 부문을 포함하여 6개 산업 부문을 운영 중이다.

사조산업은 환경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검증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Ocean Outcomes와 협업하면서, 사조산업은 지속가능 참치 어업을 위한 한국 원탁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정부의 전자 모니터링 파일럿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자사 선박 28척의 중서부태평양 및 동부태평양 눈다랑어, 황다랑어, 날개다랑어 연승어업에 대한 해양관리협회의(이하, MSC) 인증 취득을 추진 중이다.

SRA(Social Responsibility Assessment Tool for the Seafood Sector, 수산부문 사회적책임평가 수단)란 무엇인가?

SRA는 수산물 공급망에서 HRDD를 수행하기 위한 진단, 벤치마킹, 리스크평가 수단이다. SRA는 환경보호 및 사회적 책임 분야의 광범위한 전문가 연합이 개발한 수단으로, 국제 표준 및 협약의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대규모 및 소규모 어업에서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포괄적인 지표 세트를 작성한다.

사조산업은 SRA를 실시하고 권고 사항 이행을 추



진하는 한국 최초의 수산 기업이다.

항구에서의 제한된 시간 및 언어 장벽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조는 Ocean Outcomes가 선장 및 선원과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러한 지원에는 원격 인터뷰, 사조 선박의 정박 기간 동안 선내 방문에 대한 유연한 대응, 외국인 선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지역 통역사 활용 등이 있다. 사조와의 협업은 향후 어업의 사회적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기반 구축에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노동 관행과 고용 관련 감사·교정·보고를 위한 시스템 개발, 이주 선원 임금 및 혜택의 기준 개선, 선원들의 접근과 고충 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같은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부각되었다. 이제 사조와 Ocean Outcomes는 이러한 발견 사항을 해결하고 이들의 연승 어업 및 공급망의 전반적 사회적 책임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출처: Ocean Outcomes, 2024년 6월 13일자

방콕 6월 말 가다랑어 가격, 톤당 1,600달러 6월 중순 대비 8.5% 상승

Atuna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방콕에서 가다랑어가 6월 중순 대비 8.5% 상승한 톤당 1,600달러에 거래되었고, 7월 1일 FAD 금지 조치로 인하여 가격이 더욱 오를 것으로 예측하는 시장 심리가 존재한다.

중서부태평양 가다랑어 어획량은 어제 크기가 준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락세이다. FAD 금지가 시작되면 어획량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사들은 최근에 어획한 어획물에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가공업체는 향후 3개월 동안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 가공업체들은 10월분까지 주문받았고 원어 재고는 충분하나, 신규 주문이 일정 수준 들어온 상황이다. 수에즈 운하를 통한 운송 수요는 증가하였으며, 운임은 급등하였다. 방콕에서 카이로까지의 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 1대 기준으로 현재 3,750달러이며, 로테르담까지의 운임은 6,400달러이다. 올해 초 운임은 2,000달러 이하였다. 중동, EU, 미국 동부 연안의 구매업체는 이러한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주문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28일자



중서부태평양 5월 어획량, 약 14만 톤

전월 대비 10% 증가...PNA 5월 전재량, 8만 1,837톤

나우루협정당사국(이하, PNA) 도서국은 5월에 총 3,533일의 선박조업일수제도(이하, VDS) 일수를 판매하였다. 이는 4월 대비 16% 증가한 수치이다. PNA EEZ와 공해 어업노력량 총합은 11% 증가한 3,795일이다. 공해 어업노력량은 8% 감소하였다. 전년도 5월 대비 총 어업노력량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어업노력량은 미크로네시아와 파푸아뉴기니(이하, PNG)에 집중되었다. 전체 어업노력량의 40%는 미크로네시아가(전월 36%), 26%는 PNG EEZ가(전월 17%) 차지하였다. 공해와 투발루(13%에서 2%로 감소), 토켈라우, 마셜제도에서의 어업노력은 감소하였다. 키리바시, 솔로몬제도, 나우루에서의 어업노력은 감소하지 않았다.

5월 선망선단의 전체 참치 어획량은 14만 1,207톤으로, 12만 8,000톤을 어획한 4월 대비 10% 증가하였다. 전체 1일 평균 어획량은 37톤으로, 전월 대비 4% 감소하였다.

어업노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크로네시아 EEZ에서의 어획량 비중은 전체의 44%로, 전월의 비중인 47%보다 하락하였다. 1일 어획량은 20% 감소한 41톤이다. PNG에서의 어획량은 1/3 증가한 1일 42톤으로, 전체 어획량의 30%(4월 15%)를 차지하였다. 투발루 EEZ에서의 총어획량은 VDS 구매 감소로 인하여 급감하였다. 일일 어획량은 25톤을 기록하였다. 공해에서의 일일 어획량은 46톤으로, 수역별 일일 어획량 중 최고치였다.

중서부태평양 동부에서의 어획량은 감소하였고, 4월에 일일 14톤의 어획량이 보고된 토켈라우에서는 어획량이 없었다.

총어획량 13만 3,854톤을 기록한 가다랑어의 일일 어획량은 35톤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대형 황다랑어의 총어획량은 733톤, 일일 어획량은 0.19톤으로 거의 잡히지 않았다. 소형 황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1.1톤으로 다소 개선되었다. 대형, 소형 눈다랑어 일일 어획량은 각각 0.08톤, 0.6톤이다.

PNA 사무국의 6월 데이터에 따르면 조업 활동이 미크로네시아에서 PNG로 대폭 이동하였다. 약 45%의 조업이 PNG에서 이루어졌고, 미크로네시아는 28%에 그쳤다. 일일 어획량은 전체 총합이 일일 36톤, 가다랑어가 33톤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황다랑어의 6월 어획량은 다소 개선되었다.

한편, PNA 항구에서의 5월 전재량은 5월 어획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였다.

PNA 도서국 수역에서는 5월에 8만 1,837톤이 전재되었다. 이는 4월 대비 약 1만 1,000톤 감소한 수치이다. 5월에 전재 활동을 한 선박의 수는 124척으로, 4월(134척) 대비 감소하였다.

태평양 도서국 항구에서 이루어진 전재 활동은 마셜제도(3,040톤, 3% 증가)를 제외하면 모두 감소하였다. PNG 항구(마당, 라바울, 라에)에서는 전체 전재량의 42%인 3만 5,000톤의 전재가 이루어졌다. 이는 4월 대비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PNG 항구에서 전재 활동을 한 선박 수는 61척에서 56척으로 감소하였다.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솔로몬제도에서의 전재량 비중은 각각 전체의 40%, 8%, 5%였다. 투발루와 나우루에서의 전재 활동은 없었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17일자, 18일자



에콰도르 가다랑어, 태국산보다 저렴하게 판매 어획량 호조에 재고가 가득 차 가격을 압박

에콰도르와 태국산 가다랑어 가격 격차가 확대하고 있으며, 어획량 호조와 재고가 가득 차 물량이 라틴 아메리카 참치 가격을 압박하고 있다.

6월 방콕의 가다랑어 가격은 낙관적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여 톤당 1,500달러까지 치솟았다.

태국 가격의 상승은 페루와 에콰도르의 풍부한 어획량으로 저장 공간이 가득 차 가격이 더 하락한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라틴 아메리카의 업계 관계자들은 가다랑어 가격이 1,300~1,350달러까지 떨어졌다고 말하였다. 또 다른 소식통은 "현재 대부분의 거래는 냉장창고와 통조림 공장이 가득 차 하역이 오래 지연되면서

1,3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작년 엘니뇨로 촉발된 지속적인 어획 호조로 인한 공급 과잉이 가격 하락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태국산에 비해 할인 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에콰도르 만타의 어획량이 좋은데도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는 방콕과의 격차가 이미 커지고 있고 동부 태평양의 첫 번째 어업 폐쇄가 다가오고 있으며, 대부분 배들이 높은 재고를 고려하여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6월 18일자

인도양 가다랑어 가격, 전월 대비 약 6% 상승 톤당 1,400유로

계절풍으로 인하여 해수면 온도가 낮아지면서 가다랑어 어획량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인도양 선망선단 어획량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과 가공업체의 원어 수요가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가다랑어의 희소성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세이셸 냉동 가다랑어 원어 가격은 톤당 1,400유로로, 전월 가격인 톤당 1,325유로 대비 약 6% 상승하였다. 인도양 선망선단의 올해 누적 어획량은 2023년 동기 대비 30~40% 부족한 수준이다. 2023년은 어획량이 좋지 못하였고, 황다랑

어 쿼터를 모두 소진하지 못했던 시기였다.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에도 황다랑어 FAD 쿼터를 모두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는 대형 황다랑어 스킵 조업으로 일시 전환하여 성과를 냈다.

방콕의 높은 어가는 IOT와 Prince 가공업체들과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중서부태평양의 빠른 공급으로 인하여 인도양 선주들은 방콕 시장에 판매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26일자



日 냉동 참치류 5월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톤 수입

< 2024년 5월 일본 냉동참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2024년 1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2024년 4월	2024년 5월
날개다랑어	한국	25	6	34	4	77
	대만	330	12	490	458	637
	바누아투	-	-	121	740	333
	기타	109	299	572	235	59
	소계	464	317	1,217	1,437	1,106
황다랑어	한국	261	148	76	265	239
	중국	425	472	624	375	106
	대만	789	970	1,118	1,742	1,172
	필리핀	-	-	49	-	-
	인도네시아	-	-	-	-	-
	미국	-	-	-	-	-
	바누아투	36	26	212	152	139
	피지	-	-	13	-	-
	키리바시	-	-	-	27	-
	마셜제도	-	-	45	-	-
	기타	1,359	630	289	1,658	954
소계	2,869	2,245	2,426	4,220	2,610	
눈다랑어	한국	259	225	297	126	484
	중국	202	755	808	980	385
	대만	1,928	1,438	2,319	2,508	1,894
	필리핀	-	-	-	0	-
	인도네시아	-	-	-	-	-
	세이셸	470	461	119	693	389
	바누아투	52	17	378	442	259
	기타	110	4	378	169	147
	소계	3,020	2,901	52	4,917	3,559
남방참다랑어	한국	-	158	17	-	-
	대만	95	143	1	6	3
	호주	-	-	19	-	-
	소계	95	301	37	6	3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7월 5일자



남방다랑어 日 가격, 전년도 대비 40% 급락

日 원양선 75척 대폭 적자

일본 미나토신문에 따르면 남방 다랑어의 산지 가격 급락으로 인하여 일본 원양 참치 선단의 적자 조업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양 참치 연승어업 등의 전국 조직인 일본가다랑어·참치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2022년도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입이 감소하여, 냉동 참치 전체에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주요 어항인 시즈오카현 시미즈항에서의 남방 다랑어 양륙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2023년도는 유통량이 회복되면서 동 항구의 남방 다랑어 대형어(40kg 이상)의 가격은 “kg당 1,500엔 수준으로, 전년도 대비 40% 급락하였다.”라

고 조합 측은 전하였다.

남방다랑어를 어획하는 일본 어선은 75척으로,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눈다랑어 등도 어획한다. 그러나 어가 급락 및 유류비 등 비용 급등으로 인하여, “양륙 시 금액이 2022년도 대비 척당 약 7,000만 엔 감소하여, 대부분 어선이 적자를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처음이다.”라고 조합 측은 전하였다.

남방다랑어를 어획하는 어선은 일본 원양 참치 어선의 약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어업 경영을 지속하기 어렵고, 눈다랑어 등의 유통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합 측은 말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7월 2일자

日 냉동 눈다랑어 5월 수입가격, kg당 736엔

3개월 연속 하락세 지속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다랑어류의 5월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제품 수입량 350톤(전년도 동월 대비 30% 감소), 수입액 5억 2,400만 엔(48% 감소), 냉동 제품 수입량 1만 5,465톤(2% 증가), 수입액 181억 6,700만 엔(12% 감소)이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의 총수입량은 3,559톤(11% 감소)으로, 비중이 가장 큰 대만산 수입량은 1,894톤(31% 감소)이다. 4월까지의 전년도 1~4월을 상회하였으나, 5월까지의 누계는 전년도보다 적었다.

대만산의 kg당 수입 평균 단가는 kg당 736엔(14% 하락)으로, 올해 2월 828엔으로 상승한 이후 3개월 연속으로 월간 단가 하락 추세가 이어졌다.

냉동 창고에 공간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대기선 및 현지 창고에 보관된 일본 수출용 제품이 있으므로, 단순 수입량 통계만으로 물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실제로는 공급 과잉 상태로 추정된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7월 5일자



美 SIMP 통한 수산물 수입, 절반이 참치

수량 기준 약 36만 톤

미 해양대기청(이하, NOAA)은 SIMP(미국 수산물 수입 모니터링 프로그램) 조사 결과를 의회 보고서에 제출하여 수입 개요, 관련 검사 조사 결과 및 집행 조치를 제공하였다.

SIMP는 2016년 IUU 어획물 미국 내 유입 방지를 위한 핵심 메커니즘으로 고안되었다.

2023년 미국은 SIMP를 통하여 77만 3,238톤, 64억 3,000만 달러 상당의 어류를 수입하였다. 이들 제품은 국내로 배송되는 모든 수산물(SIMP 적용 제품, 미적용 제품 모두 포함)의 약 32%(수량 기준)와 30%(금액 기준)를 차지한다. 2023년 미국 시장에는 약 35만 9,377톤, 24억 3,000만 달러 상당의 참치가 수입되었다. 이는 SIMP 하에 수입된 식품의 절반이다.

NOAA에 따르면, 참치와 새우는 지난 수년간 물량과 금액 기준으로 전체 SIMP 수입의 약 75%를 차지하였다. 다만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

까지 SIMP 적용 제품뿐만 아니라 총수산물 수입량 및 수입액이 급감하였다.

NOAA는 자동으로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을 수행하며 여러 데이터 세트에서 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는 분석 IT 시스템인 GSDS(Global Seafood Data System)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도구는 현재 테스트 중이며 2024년 내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NOAA가 2023년 가장 많이 조사한 품목은 참치와 새우로, 전체 검사 완료 품목의 약 61%를 차지하였다. NOAA는 조사 중에 발견된 가장 빈번한 문제가 어획 중량 및 불연속성 문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참치 제품에는 총 16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고, 70%의 불이행률을 보였다. 가장 주된 문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에 신고된 어획 국가가 확인되지 않는 어장 관련 오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7일자

美-태평양 국가, 24년 美 선단 접근 합의

태평양 도서국 EEZ 내 미국 참치 조업 허용

피지 총리는 2024년 미국 참치 선단의 지속적 어업 접근을 보장하는 미국 정부-태평양 도서국 간 양해각서(MOU)가 승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현존 수산 관련 협정의 일부인 해당 합의는 미국 선단의 태평양 도서국 EEZ 참치 조업을 허용한다.

총리는 최근 내각 회의 후 “피지는 태평양 수역에 미국 참치 선단의 접근을 허용하는 조약의 당사국

이다.”라고 밝혔다.

조약의 당사국에는 호주, 쿡제도, 마이크로네시아 연방, 피지,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통가, 투발루, 바누아투가 포함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6월 24일자



EU 24년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량, 약 11만 톤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021년, 2022년 대비 많아

EU의 2024년 1분기 참치 통조림 수입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우려되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 수입 단가는 전년도 1분기와 거의 비슷하였다.

EU는 2024년 1분기 동안 총 11만 2,286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입하였다. 이는 전년도 동기 대비 7,416톤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량은 여전히 2021년, 2022년 1분기 수입량보다는 많다.

낮은 수요와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2023년 하반기 동안 참치 통조림 수입량이 매우 저조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올해 1분기 수입량은 그러한 하락세를 따라가지 않았다. 수입 평균 단가는 톤당 5,444유로(약 5,851달러)로 전년도 1분기에서 거의 바뀌지 않았으나, 2023년 단가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EU 구매자들이 매입했던 시기인 10~11월에 만타와 방콕의 원어 가격은 각각 톤당 1,800달러, 1,770달러로 여전히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원어 가격은 두 가공 허브에서 모두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EU 외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6만 9,552톤으로 3% 감소하였고, 수입 단가는 톤당 4,802유로로 4% 하락하였다. EU 내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11% 감소한 4만 2,734톤을 기록하였고, 수입 단가는 5% 상승한 톤당 6,489유로를 기록하였다.

에콰도르산 수입량은 30% 증가한 2만 4,651톤이나, 수입 단가는 2% 하락한 톤당 4,772유로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산은 세울 우대 혜택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45% 증가한 5,982톤을 기록하였다. 베트남산 수입 단가는 톤당 3,955유로로 1% 상승하였

나 여전히 수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이셸산은 저조한 인도양 어획량의 영향으로 44% 감소한 4,820톤을 기록하였다. 대부분은 프랑스나 이탈리아로 수출되는 황다랑어 제품이다.

스페인산의 EU 내 수출량은 약 22% 감소한 1만 8,291톤을 기록하였다. 수출품에는 2023년 말 원어 가격이 소폭 상승한 황다랑어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EU의 주요 통조림 시장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1분기 수입은 약 20% 감소하였다.

프랑스의 1분기 수입량의 경우,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높은 가격대로 인하여 약 1/3이나 감소한 1만 5,674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지난 5년간의 1분기 수입량을 통틀어 최저치이다. 프랑스의 EU 외부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41% 감소하였다.

Petit Navire 브랜드를 생산하는 IOT 공장이 위치한 세이셸산 수입량은 77%나 감소한 5,448톤을 기록하였으나, 고가 황다랑어 제품이 주를 이뤘기 때문에 수입 가격은 1% 상승한 톤당 6,525유로였다.

다른 인도양 가공 국가로부터의 수입 또한 감소하였다. Pompon Rouge 브랜드를 생산하는 마다가스카르산은 31% 감소한 611톤을 기록하였다.

대서양산에 의존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산 수입량은 모두 16%씩 감소하였다. 가나산과 코트디부아르산의 평균 수입 단가는 수입국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가나산의 단가는 566유로 하락한 톤당 6,269유로였다.

에콰도르산은 전년 대비 3% 하락한 톤당 4,586유로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하여 수입량이 45%나 증



가한 2,778톤을 기록하였다.

스페인산은 29% 감소한 4,141톤으로 가격은 9% 상승한 톤당 6,873톤이었다. 가격 상승 및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은 여전히 주요 공급국 지위를 유지하였다. 로테르담항, 앤트워트항이 위치한 네덜란드와 벨기에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하였다.

이탈리아의 1분기 수입량의 경우, 1만 5,817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44톤 감소하였다. 이들은 공급처를 대서양과 인도양 가공업체에서 라틴아메리카 가공업체로 옮겼다.

이탈리아의 에콰도르산 통조림 수입량은 45% 증가하였고, 콜롬비아산은 35% 감소하였다. 엘살바도르산의 수입 단가는 전년 대비 27% 하락한 톤당 8,192유로지만 여전히 가장 비싼 공급국 자리를 지켰다. 대신 이탈리아는 엘살바도르산의 수입을 106% 증가시켰다.

이탈리아의 1분기 스페인산 통조림 수입량은 7,818톤으로 최대 공급국 지위를 지켰다. 스페인산은 22% 감소하였으나 수입 단가는 9% 상승하였다.

스페인의 1분기 수입량은 1만 4,283톤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 수요가 감소하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도네시아산 및 중국산 수입을 늘렸다. 스페인은 이 두 국가로부터 총 2,708톤을 수입하였고, 평균 단가는 톤당 2,575유로였다.

스페인의 1분기 에콰도르산 수입량은 6,912톤으로 전 공급국을 통틀어 큰 차이로 1위이며, 평균 수입 단가 또한 EU 외 공급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톤당 4,629유로였다. Princes 가공 공장이 위치한 모리셔스산 수입량은 60% 감소한 644톤이며, 수입 단가는 11% 상승한 톤당 4,701유로이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10일자, 6월 18일자

태국 어업법 개정, 태국-EU FTA에 영향 태국산 통조림 EU 무관세 수출 무산 가능성 존재

태국 정부가 자국 어업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 협정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다수 언론 매체는 태국이 인권 및 해양 보호와 관련하여 지난 8년간 이룩한 진전이 현재 제안된 태국 수산업법 개정안으로 인하여 무산될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수익을 증대하고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도 정부에서 논의 중이다.

제안된 개정안이 태국의 EU 무관세 참치 통조림 수출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태국-EU 간 FTA 협상은 2023년에 시작되어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현재 태국 국적으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 선박 명단에 등재된 참치 어선은 없으며, 냉동 운반선 6척만 등재되어 있다. 그러나 완화된 어업법이 시행된다면 선사들은 선박 국적을 태국으로 변경하길 원할 가능성이 높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어업 관련 규제를 적용받을 뿐만 아니라, EU FTA 조건에 해당하는 원산지 어획물을 공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태국이 참치 제품 등에 무관세 특혜를 받게 될 경우, IUU 어업으로 인한 참치가 EU로 반입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27일자



EU, 2024년 1분기 냉동 참치 원어 수입 급증

2023년도 1분기 대비 32% 증가

EU는 2024년 1분기 동안 전년 대비 30% 이상 많은 냉동 참치 원어를 수입하였다.

2024년 1분기 EU 냉동 참치 원어 수입량은 3만 7,661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9,209톤 증가하였다. 평균 단가는 톤당 2,510유로(약 2,719달러)이다.

인도양에서의 어획량 부족과 다가올 황다랑어 쿼터 감축 영향으로 인하여, 세이셸산의 수입량은 3,964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1% 감소하였으나, 유럽 외부 공급국 중에서 1위를 지켰다.

1분기 한국산, 벨리즈산, 필리핀산 수입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해당 국가로부터의 수입량 증가분은 모두 9,824톤이다. 이들은 EU의 1분기 원어 수입량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한국산과 필리핀산의 물량 증가는 전년 대비 대폭 하락한 단가(한국 25% 하락, 필리핀 27% 하락)에 기인하였다.

EU의 기존 주요 공급국인 엘살바도르산은 192톤 증가하였으나 수입 평균 단가는 20% 상승하였다. 파나마산과 과테말라산 수입량은 50% 이상 감소하였고, 단가는 각각 11%, 21% 하락하였다.

EU 내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2% 감소하였다. 스페인산 수입량은 6,484톤으로 2% 감소하였고, 단가는 톤당 3,373유로로 3% 하락하였다. 포르투갈산과 프랑스산의 수입량과 단가는 모두 상승하였다.

신규 공급국으로의 전환 추세는 '기타' 범주에서도 나타났다. '기타' 범주에 속하는 국가들로부터의 원어 수입량은 45% 증가하였다. 중국산 수입량은 22% 증가한 1,092톤, 단가는 34% 감소한 톤당 2,306유로로, EU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 출처: Atuna, 2024년 7월 8일자

태국, 세계 참치 통조림 수출량 1위 달성

제품에 가치를 더해 지속가능한 관리에 집중해야

태국은 2024년 첫 5개월 동안 22만 1,092톤의 참치 통조림을 수출하여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물량은 19.39%, 금액은 13.40% 증가한 9억 7,858만 달러의 가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참치 통조림 생산에서 나오는 부산물은 반려동물 사료의 원료로 사용된다. 1월~5월 반려동물 사료 수출액은 10억 7천만 달러로 급증하였다.

2023년 태국의 상위 5개 참치 통조림 수출 시장은 미국이 4억 8,200만 달러로 전체의 23.1%를

차지했으며, 일본 2억 5,700만 달러(12.3%), 호주 1억 7,268만 달러(8.27%), 리비아 1억 5,000만 달러(7.2%), 사우디아라비아 1억 7,392만 달러(6.61%)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태국 참치 통조림 수출이 급증한 요인은 참치 원가 하락, 할랄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품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TPSO는 설명하였다.

* 출처: Vietnamplus, 2024년 7월 1일자



FAO “참치, 2022년 전 세계 최다 섭취 어종”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 어획량 약 463만 톤

상업용 참치 및 참치 유사종은 세계 최대의 자연산 어업 어종이다.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합은 세계 수산물 소비량 중 1위 자리를 유지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는 격년제로 약 3,000종의 수산물 데이터를 분석한 세계 어업·양식업 현황 보고서(이하, SOFIA)를 발표한다. 2024년도 SOFIA에 따르면, 2022년 전체 해양 어업 어획량은 7,971만 톤에 달한다. 이 중 85%가 참치 및 참치 유사종을 포함한 어류이다.

멸치는 단일 어류로는 자연산 어획량 부문에서 어획량 485만 톤으로 최다였으나, 해당 어종은 대부분이 어분이나 어유로 사용된다. 명태는 어획량에서 336만 톤으로 2위를 차지하였으나,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어획량(전체 해양 어획량의 6.9%)을 합치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섭취한 어종이 된다.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어획량은 463만 톤으로, 2020년 대비 5% 증가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참치종 및 유사 참치종 어획량의 총합은 수년간 증가세였고 2022년에는 역대 최다 수준인 830만 톤을 기록하였다.

전 세계 수생생물 생산량(어업·양식업 모두 포함)은 2022년 역대 최다치인 1억 8,500만 톤을 기록하였다. 이는 2020년 대비 4% 증가한 수치이다. 해양 수역 생산량(어획, 양식 모두 포함)에서의 생산량

은 1억 1,500만 톤이다.

2022년 전체 생산량인 1억 8,500만 톤 중 약 89%인 1억 6,460만 톤이 직접 식용(human consumption)으로 소비되었다. 이는 1인당 20.7kg에 해당한다. 직접 식용 외의 주 용도로는 어분, 어유가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생 생물의 세계 섭취량은 세계 인구 증가율보다도 높은 연간 성장률을 보이며 크게 증가하였다. 1961년부터 2021년까지 섭취량은 연평균 3%씩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세계 인구는 연평균 1.6%씩 증가하였다.

1961년에는 1인당 9.1kg의 수생 생물을 섭취하였으나, 2021년에는 20.6kg으로 증가하였고, 2022년에는 20.7kg으로 잠정 집계되었다. 공급 증가, 보존 및 유통 기술 발전, 소비자 선호 변화 및 소득 증가가 성장의 주요 동인이다.

전 세계 상업용 참치종의 2022년도 수출액은 미화 기준 약 170억 달러로, 2020년 대비 14% 증가하였다. 이는 전체 어류 및 수산물의 수출액 중 9%이다. 참치 통조림의 비중은 이 중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며, 태국, 에콰도르, 중국, 몇몇 유럽 국가들이 최대 공급국이다.

팬데믹 동안, 다른 여타 수산물과 달리 참치 통조림은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저렴한 단백질이라는 점



으로 인하여 소비자 수요가 높아져 2020년에 수출량과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2021년에는 2020년 대량 주문으로 인하여 소매업체들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하게 되면서 수출 물량이 감소하였다. 2022년에는 세계적으로 수출 물량 및 수출액 모두 반등하였는데, 이는 미국 및 다수 유럽 국가의 브랜드, 소매업체, 무역업체 등의 매입 증가가 주원인이었다. SOFIA 보고서는 최근 수년간 중동 시장 상온보관 제품 수입량 증가 추세 또한 언급하였다. 신선 참치 수출량은 감소하였으나, 단위당 가격은

통조림 제품 대비 3배나 높았다. 신선 참치 부문은 팬데믹 기간인 2020년에 수출량에서 큰 감소를 겪었으나 2021년에 회복되었고 2022년에도 성장세를 이어나갔다. 신선 참치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EU, 미국, 일본이 있다.

2022년 수산물 부문의 국제 무역 총액은 역대 최고 수준인 1,95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위 10개 수출국 중 중국, 베트남, 에콰도르, 스페인은 참치 통조림, 냉동 자숙 로인 등 다양한 제품을 수출하였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14일자

서태평양 위원회, 외국 참치 덤핑에 우려 표명

수입산 급증으로 자국 산업 약화

서태평양 지역 어업 관리 위원회(Western Pacific Regional Fishery Management Council)는 최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회의에서 외국산 참치 덤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외국과의 경쟁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경고하였다.

위원회 의장의 발언은 국내 수산물 산업을 약화하는 생선 수입에 대한 의원들의 오랜 우려의 연장선에 있다. 지난 3월, 위원들은 보조금을 받는 값싼 수입 수산물로 인해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였다.

"보조금을 받고 연료를 공급한 선단이 어획한 엄

청난 양의 수입 참치가 시장에 '덤핑' 되고 있다."라고 하와이 연승협회 전무이사는 지난 3월에 말하였다. "이는 현지 소비자들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와이 어업 업계에도 불공평하다. 보조금을 받는 외국산 수입품과 소매가격 폭리로 하와이 연승 어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위원회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 업계 대표들이 모여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문제를 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회원들은 연방, 주, 자치령 정부에 원산지 표시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7월 1일자



베트남 참치 수출, 24년 상반기 20% 증가 예상

정부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참치 산업 성장

베트남 수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참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4억 5,68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에 감소했던 수출액은 올해 5개월 동안 22% 증가한 3억 8,8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참치 통조림, 파우치형 참치, 냉동 로인/필렛의 수출은 각각 44%, 24%, 7% 증가하였다. 냉동 라운드 참치 수출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대부분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가장 큰 두 시장인 미국과 EU행 수출이 각각 30%와 37%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37%와 22%를 차지하였다.

또한, 이스라엘, 러시아, 한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64%, 58%, 66% 증가하였다.

베트남 빈딘수산社의 이사는 베트남이 10년 전 8위에서 2023년에 태국, 에콰도르, 스페인, 중국에 이어 세계 5위의 참치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빈딘수산社 이사는 2022년에 참치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주목할 만한 이정표를 달성하였다고 말하였다.

참치 산업의 잠재력에 대해 빈딘수산社 이사는 “우리는 첨단 참치 가공 공장,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거의 100개 시장에 수출되는 평판 좋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30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전을 극복하고 정부의 지원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한다면 베트남 참치 산업은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

빈딘수산社 이사는 원료 부족 문제가 해결된다면 올해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빈딘수산社 이사는 일본 수출의 50% 이상이 수입 참치로 가공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기업들은 '어획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획증명서는 어획물이 IUU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다.

빈딘수산社 이사는 안전 조건 및 금지 수역 조업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여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나열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많은 어선이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했지만, 정기적으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여 6시간 이상, 때로는 2~3일 동안 조업 모니터링 시스템의 연결이 끊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를 제품 구매자는 알지 못하며 정부는 이에 대비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고 빈딘수산社 이사는 말하였다.

빈딘수산社 이사는 정부 규정에 따라 어선과 어항의 위생 및 식품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엄격하게 시행해야 하며, 항만 직원의 감독하에, 어선에서 하역이 완료되면 증명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 출처: The Star, 2024년 6월 20일자



인도네시아, 전 세계 참치 생산량의 18% 차지

1~5월 참치 수출액 3억 7,400만 달러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수산자원관리국장은 640만 km²의 해수면 면적을 바탕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참치 자원이 풍부하다고 말하였다.

"일반적으로 참치는 가다랑어를 비롯한 참치류가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의 평균 생산량은 연간 149만 톤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5대 참치 상품에는 황다랑어, 참다랑어, 눈다랑어, 날개다랑어, 가다랑어가 포함한다고 설명하였다. "이 다섯 가지 어종이 평균 70만 6,400톤의 생산량을 차지한다."라고 하였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참치 수출액은 3억 7,400만 달러로 2023년 같은 기간의 3억 5,900만 달러에 비해 4.3% 증가하였다.

국가 전체 수산물 수출에서 참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년 1월~5월 16%에서 올해 같은 기간 16.4%로 증가하였다.

마흐무드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물경쟁력 국장은 인도네시아 참치 투자 및 비즈니스 포럼 기자회견에서 "가치와 점유율 추세가 모두 상승하고 있어 참치 수출이 계속 증가할 잠재력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마흐무드 국장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참치 수출액은 2022년에 9억 6,000만 달러에 달했지만 2023년에는 9억 2,700만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다.

* 출처: Tempo.co, 2024년 6월 20일자, Jakartaglobe, 2024년 6월 21일자

러시아, 베트남 참치 수입국 상위 5위권 진입

수입 연어 가격 상승으로 참치로 대체

베트남 공산당 전자 신문은 6월 3일 세관 데이터를 인용하여 2024년 1분기 베트남에서 러시아로의 참치 수입이 2023년 같은 기간에 비해 65% 증가하여 천만 달러에 달했다고 보도하였다. 러시아 시장에 공급되는 주요 수출 품목은 냉동 참치살이 전체 물량의 75%를 차지한다.

이 신문은 러시아가 베트남에서 이러한 유형의 생선을 수입하는 상위 5위 수입국에 진입하여 4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의 침체 이후 지난 3년 동안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2023년 베트남에서 러시아로

의 참치 수출 결과에 따르면 공급량이 2,900만 달러에 달했던 2021년보다 두 배 증가하였다.

전러시아수산업/수출업협회는 베트남이 중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러시아 참치 수입의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지적하였다. 러시아에서는 수십 개의 공장에서 참치 통조림을 생산하고 있다. 소매 체인점의 내부 통계에 따르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참치 대부분은 통조림 형태로 판매된다. 호텔, 레스토랑 및 카페에서는 냉장냉동 수요가 많다.

* 출처: Fishretail, 2024년 6월 11일자



NOAA “참다랑어, 지속 가능 어종으로 변화”

태평양 참다랑어, 어자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태평양 참다랑어 자원 회복이 예정보다 10년 빨리 국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다.

미 해양대기청(이하, NOAA) 수산 연구원과 북태평양 다랑어 및 다랑어 유사종 국제과학위원회(이하, ISC)는 과학적 전문 지식에 따른 보존 조치를 제안하였다.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이하, IATTC)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는 이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ISC는 최근 연례 회의에서 새로운 자원 평가를 마무리하였다. 평가 결과 2021년에 2차 회복 목표에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의 관리 조치가 지속된다면 개체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획으로 인하여 참다랑어 자원량은 2009~2012년에 잠재적 미 어획량의 2%라는 사상 최저치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2011년부터 남획을 막고 참다랑어 자원을 재건하기 위한 다자간 조치가 시작되었다. 목표는 2034년까지 산란 가능 자원량의 최소

20%까지 회복하는 것이었다.

태평양 참다랑어는 범위 전체를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한다. IATTC는 동부 태평양에서, WCPFC는 서부 및 중부 태평양에서 참다랑어를 관리한다. 두 기구 모두 7개 국가로 구성된 ISC에서 생산한 과학 자료를 바탕으로 합의에 따라 채택된 참다랑어 관리 및 보존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NOAA 수산국은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두 기관이 합의한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이행한다.

참다랑어 자원의 개체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향후 몇 년 동안 어획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참다랑어 관리에 관한 IATTC-WCPFC 공동 실무 그룹은 2025년 이후의 보존 및 관리 조치를 권고하기 위해 7월 일본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IATTC와 WCPFC는 올해 말 연례 회의에서 이 권고안을 채택해야 한다.

* 출처: NOAA, 2024년 6월 25일자

日,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 130% 증가 제안

참치 자원 재건 목표 13년 빨리 달성

일본 수산청은 다가오는 국제회의에서 서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한도를 30kg 이상의 대형 어종에 대해 131%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고 6월 25일 발표하였다.

이 제안은 또한 30kg 미만의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쿼터를 30% 늘려 1만 3,000톤으로 늘릴 것이다. 대형 다랑어에 대한 131% 증가로 쿼터는 1

만 7,500톤으로 늘어난다.

일본의 제안은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리는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와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북부 위원회 실무 그룹 합동 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7월 1일자



타이유니온, 23년 MSC 인증 어업 조달 8% 증가 2023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표

타이유니온이 지난 6월 초 발표한 2023년 자사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의 2023년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 인증 어업으로부터의 참치 조달은 2022년 대비 8% 증가하였다. 해당 보고서는 타이유니온의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지속가능성 성과 정보를 제공한다.

타이유니온은 2023년 MSC 인증 참치 조달량을 전년도 대비 8% 증가한 전체의 39.44%로 증가시켰다. 이들은 MSC 인증 평가를 시작하는 단계인 FIP 어장에서 조달량을 전체의 31.42%로 감축하였다.

타이유니온 어선원 노동&복지 프로그램은 타이유니온이 조달하는 모든 참치 어선에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공급자의 수가 2022년 대비 약 14% 증가하였다.

타이유니온은 전자모니터링(이하, EM)이 설치된 선박 또는 옵서버 승선 선박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을 90%까지 늘렸다(2022년 79%).

국제수산물지속가능성재단(이하, ISSF)의 2023년 감사에서 타이유니온은 ISSF의 33가지 보존 조치를 100% 준수하였다.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구매된 참치의 99%는 모든 어획 요건을 충족한 선박에서 나온 것이며 모든 선박은 관련 RFMO에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머지 1%는 열대 참치에 대한 국가 제한을 초과한 인도네시아, 브라질, 세네갈 선단으로부터 생산되었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26일자

日 대형 가공업체, 식당용 식물성 '참치회' 출시 세계 인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로 어류 공급 부족 대비

일본의 한 대형 식품 가공 회사가 식물성 재료로 만든 '참치회'를 일본 국내 식당에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참치 붉은 살의 향과 식감을 재현해 회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수산자원의 감소가 문제로 대두되면서 콩 등을 이용한 '대체 수산물'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오사카에 본사를 둔 NH식품은 수산물 중 일본인의 구매가 가장 많은 참치에 주목하였다. 이 회사는 곤약 분말, 식이섬유 등을 사용하여 1년간의 개발 끝에 참치 특유의 식감을 재현하였다.

현재는 호텔 등 일본 국내 레스토랑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지만, 요청이 있으면 편의점이나 온라인 사이트 판매도 검토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어획량이 적어 수요가 많은 수산물을 중심으로 제품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리서치 회사인 후지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 관련 제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대비 4배 증가한 6조 5천억 엔(약 4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The mainichi, 2024년 6월 18일자



태평양 도서국, 전자모니터링 한계 지적

옵서버 관측 대비 한계점 발견

태평양도서국과학센터(이하, PIFSC)는 하와이 참치 연승 어업의 전자모니터링(이하, EM)의 자료수집 능력을 조사한 결과,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하였다.

서태평양지역수산관리협의회의(이하, WPRFMC) 과학위원회는 지난 6월 중순 회의에서 옵서버 커버리지(observer coverage) 감소의 부정적 영향을 조명하고, 옵서버 커버리지 보안을 위한 EM 사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PIFSC 연구진은 EM 시스템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와 선내 옵서버의 정확도 비교를 설명하였다. 옵서버는 연승의 설치와 운반까지 감시할 수 있지만, EM 카메라는 연승을 운반하는 동안에만 녹화되도록 설정되었다.

EM과 옵서버 커버리지는 옵서버가 수집 양식에서 기록해야 하는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만 비교된다. 연승 어업의 항해 기록은 대부분 EM으로 수집 가능하다. EM은 어획물 보유량의 98%를 탐지 가능하

고, 전체 어획량의 89%를 탐지할 수 있으나, 어구 상태 및 사이즈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옵서버는 거북이 및 돌고래와의 상호 작용을 주의 깊게 기록하여 종과 부상 정도를 식별하고 생존 확률을 판단하나, EM은 경미한 부상 및 포착되지 않는 모든 사건을 감지하지 못하였다.

옵서버가 촬영하는 보호종의 사진이나 주요 어획 관련 사건은 EM 비디오의 화상 기록에서 추출할 수 있다.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는 선원, 선박 정보, VMS의 존재 및 사용, 보안 봉인 손상 여부 등 EM 시스템으로 확보할 수 없는 데이터를 요청하였다. 옵서버의 육안 감시는 여전히 필요하다.

연료 비용, 엔진 오일, 미끼, 어구, 어획물 운송 비용 등 어선의 항차에 들어가는 비용의 경제적 정보 또한 EM이 수집할 수 없다. 그러나 옵서버의 선상 인터뷰는 항차 이후 인터뷰로 대체될 수 있다.

* 출처: Atuna, 2024년 6월 19일자

대만 수산청, 6월 12일부터 참다랑어 조업 중단

할당 쿼터량 초과량은 내년 쿼터에서 차감

대만 수산청은 6월 12일 자정부터 참다랑어 조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올해 어획량이 국가 할당량에 빠르게 근접함에 따라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참다랑어 자원이 회복되면서 대만의 연간 어획량도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하였다. 2023년 어획량은 2,122톤에 달해 국가 할당량인 1,965톤을 초과하

였다. 다행히 2022년 쿼터 중 미사용분이 이월되어 작년에는 남획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쿼터를 모두 소진하였으므로 할당된 1,965톤을 초과하는 어획량은 내년 쿼터에서 차감된다.

* 출처: Radio Taiwan Intl, 2024년 6월 11일자



아르헨, 일렉스 오징어 조업 종료 가능성 제기

오징어 수출량 2023년 대비 106% 증가

아르헨티나 오징어 업계는 아르헨티나 연방어업위원회(이하, CFP)가 오징어 자원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는 INIDEP(수산과학원)의 보고서에 근거하여 모든 채낀기 어선에 일시 귀항을 지시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CFP가 예정된 회의에서 올해 일렉스 오징어 어기 종료를 선언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오징어 업계는 전년도 어기에 가장 많은 어획량을 기록했던 시기가 5월과 6월이라고 주장하였다. 다만 올해 조사에 따르면 오징어의 크기가 이례적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렉스 오징어는 2023년에 부진한 초기 어획을 보이다가 북위 42도선 북쪽에서 어획이 회복되어,

5월 말부터 2014년 이후 최고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초기 어획량 호조 이후 M과 L 사이즈 어획이 감소하다가 어획량이 일일 몇 톤으로 줄어들며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졌다.

6월의 일부 수치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시점의 비공식적인 어획량은 전년도 어획량(15만 3,268톤) 대비 10% 감소한 약 13만 6,000톤이다.

2023년에 비해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수출량 증가로 인한 전반적인 소득이 증가하였다.

올해 오징어 채낀기 조업선의 어획량은 10만 6,000톤으로 지난해 대비 34% 감소하였다. 상업 어선의 어획량은 14% 증가하였다.

* 출처: MercoPress, 2024년 6월 24일자

일렉스 오징어, 5월 말까지 약 14만 톤 어획

최종 어획량 15만~16만 톤 예상

아르헨티나 EEZ 내에서 어획하는 아르헨티나 일렉스 오징어 조업이 종반에 가까워졌다. 올해 1월부터 5월 28일까지의 어획량은 14만 1,106톤을 기록하였다. 무역회사 소식통은 올해의 누적 어획량은 “작년과 비슷한 15만~16만 톤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하였다. 포클랜드제도에서 조업하는 대만 선단의 어획량은 호조로, 약 11만~12만 톤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무역회사 소식통은 “사용하기 편리한 1미당 200~300g이 적다.”라고 말하였다.

페루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훔볼트오징어) 조업은 부진하다. 올해 1~3월 어획량은 4만 7,206톤으로, 작년 1월 한 달 동안의 어획량(5만 6,912톤)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중국 선단이 적도상에서 어획하는 소형 무라사키 오징어의 경우, 5월 하순 시점 중국 가격은 1미 500g 이하가 1만 7,200~1만 8,000위안, 500g~1kg이 1만 5,600위안~1만 6,000위안, 1~2kg이 1만 2,500~1만 3,200위안, 2~4kg이 1만 2,000~1만 2,800위안이다.

* 출처: 마나토신문, 2024년 6월 20일자



페루 오징어 어획 부진으로 시장 불안 증가

어획 부진으로 가격 급등

페루 아메리카대왕오징어(홍볼트오징어)의 어획량 부족에 엔저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가격이 급등하자 일본 내 가공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페루 오징어는 2023년 50만 톤 이상의 어획량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자원으로 알려졌다. 일본에도 근 3년간 냉동 원료로 연간 2만~2만 3,000톤 정도가 반입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연초부터 극도의 어획 부진이 이어졌다. 한 가공업체 측은 “1~4월 현지 어획량은 작년 동 기간의 30%라고 들었다. 5~6월의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는 작년 대비 30%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원인으로는 엘니뇨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 영향으로 현지 가격 등이 모두 상승하였다. 작년 말에는 오징어 귀(耳) 기준으로 kg당 270~280

엔이었으나, 올해 6월 시점에는 600엔 이상으로 상승하였다. 필렛 가격은 작년 말 kg당 320~330엔에서 올해 450~550엔으로 상승하였다.

페루 홍볼트오징어 수출 시장으로는 중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많고, 일본의 비중은 비교적 저하되고 있다. 일본 측 통계에 따르면 1~5월 페루로부터의 냉동 오징어 수입량은 전년 동 기간 대비 44% 감소하였고, 평균 단가는 39% 상승하였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남미 엘니뇨는 이미 종식되었고, 이후 라니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한 무역업체 관계자는 “(획 부진은) 자원량 문제보다도 단지 오징어가 높은 수온을 피해 이동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다. 이전에도 어기 전반에 부진하다가 시기가 지나면서 어획된 적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7월 2일자

아르헨 4월 수산물 수출, 일렉스 붐으로 급증

전년 동월 대비 80% 이상 증가

아르헨티나 농림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4월 한 달 동안 약 4만 2,290톤의 수산물을 수출하였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1억 5,960만 달러이다. 2023년 동월 대비 수량은 81%, 금액은 65% 증가하였다.

아르헨티나의 4월 일렉스 오징어 수출량은 2만 3,599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6,080만 달러로 251% 증가하였다. 수출

평균 단가는 전년 대비 12% 상승한 kg당 2.58달러(톤당 2,576.9달러)였다.

최대 시장인 중국행 수출량은 1만 642톤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였고, 수출액은 3,380만 달러로 46% 증가하였다.

4위인 한국행 수출량은 3,716톤으로 115% 증가하였고, 수출액 950만 달러로 144% 증가하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4년 6월 5일자



페루, IUU 퇴치·오징어어업 보호 목적 긴급법령 마련

“허가 문제 악용한 중국 어업의 과도한 이득” 문제 제기돼

페루 생산부는 페루 해역에서 외국 선박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주로 오징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을 준비 중이다.

지난 5월 페루 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된 중국 선박 Tian Xiang호는 242술(미화 64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 경미한 처분을 받았고, 이 조치는 페루 어업계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대해 세르히오 곤살레스 생산부 장관은 최근 정부의 경미한 단속에 대한 업계의 비판에 따라 자국 내 어업 활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긴급 법령을 마련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페루 정부가 페루 관할권에서 위반하는 외국 선박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와 같은 국제기구에 신고할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

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결과 어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나페스칼의 엘사 베가 회장은 성명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생산국이 수백 척의 외국 오징어 어선이 적절한 통제 없이 우리 항구에 들어와 이득을 취하는 심각한 허가 문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페루 산업, 어업 및 양식 협회의 알폰소 미란다 회장은 이번 발표가 국내 어업 부문뿐만 아니라 국제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하며, 페루가 IUU 어업 활동과 관련된 선박에 물류 및 항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Fishretail, 2024년 7월 5일자

日, ‘갈고리흰오징어’ 활용 가능성 모색

가공 원료 부족으로 인하여 대체재 가능성 조사

일본 수산연구·교육·기획개발조사센터(이하, 조사센터)는 현재 동해 대화퇴(大和堆) 수역에 서식하는, 이용도가 낮은 자원인 ‘갈고리흰오징어(トスイカ, *Beryteuthis magister*)’를 대상으로 한 시험 조업 및 판로 확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센터 측에 따르면 갈고리흰오징어는 여름 동해 대화퇴 수역에서 연근해 저인망 새우 조업 시 혼획되는 어종이지만, 껍질이 벗겨지기 쉽고 외형이 좋지 못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실용화가 진행되

지 않았다.

이번 조사로 갈고리흰오징어의 이용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어획 대상종의 다양화로 어업 경영 안정화가 기대되며, 튀김 원료 및 살오징어의 대체재로서도 기대가 높다고 조사센터 측은 전하였다.

6월 26일 시점에서, 선내 동결한 갈고리흰오징어 약 37톤(8kg 단위, 4,600상자)이 양륙·판매되었다. 산지 가격은 kg당 약 330~340엔이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6월 28일자



러 2024년 명태 TAC, 약 229만 톤

내년 명태 TAC 감소 가능성 제기

2024년 러시아 극동에서의 어획가능량(TAC)은 명태가 전년 대비 11% 증가한 228만 5,000톤, 청어가 8% 증가한 40만 1,000톤이다.

한편, 대구는 18% 감소한 14만 5,300톤, 가자미는 20% 감소한 6만 841톤, 임연수어는 12% 감소한 2만 5,360톤이다. 검정가자미는 48% 감소한 2,263톤이다. 왕게(red king crab)는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1만 6,063톤, 대게는 1% 감소한 3만 821톤이다.

2025년 TAC의 경우, 명태는 전년 대비 증가한 안이 제안되고 있다. 명태의 2025년 TAC 안은 2024년 대비 12% 증가한 255만 4,300톤이다. 임연수어의 TAC 안은 98% 증가한 5만 280톤이다. 청어는 2% 증가, 가자미는 1% 증가한 안이 제안된 반면, 대구는 18% 감소, 검정가자미는 11% 감소한 안이 제안되었다.

한편, 러연방 수산청장은 2025년 명태 총허용 어획량 설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논의된 사안 중에는 베링해의 TAC 감소도 포함되었다.

내년도 명태 TAC의 과학적 정당성이 현재 환경전문 기관의 검토를 받고 있다.

주요 협회인 어선 선주 협회(ASRF), 전 러시아 어업 및 수출업자 협회(VARPE) 및 명태 협회(ADM)가 총허용 어획량을 줄이도록 제안하였다. 주요 협회는 팬데믹 이후 수출 공급 구조 조정과 비우호 국

가의 제재 부과와 관련된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러연방 수산청장은 TAC 결정은 주로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하므로 산업 과학의 경진된 정보를 기반으로 추가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는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수익성과 수출 수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춰지고 어획량도 안정되어 좋은 어황을 보인다. 우리의 임무는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여 수출량을 늘리는 것이다."라고 연방 수산청장은 말하였다.

"TAC 감소는 국내 시장이나 수출에 대한 어류 공급 감소를 수반하지는 않을 것이다. 국내 생산자는 많은 양의 명태 어획으로 러시아 소비자 제공과 외국 파트너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오늘날은 생산량이 아니라 어획량으로 획득한 제품 품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선순위는 필렛, 민스, 연육, 명란과 같은 심층 가공 제품이다."

또한 그는 기업들이 명태 제품을 더 널리 홍보하고 공급을 다각화하며 "중국과 유럽 시장에 집착하지 말고" 국내 소비자와의 협력에도 진지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25년 명태 TAC 감소는 여전히 의제로 남아 있다. 명태 자원 상태 등 과학 데이터, 시장 상황 분석 및 기업의 생산 계획 등을 기반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7월 5일자, Fishnews, 2024년 6월 24일자



러 국내 명태 H&G 도매 가격 상승

90루블 전후 유지 후 상승세

러시아는 선상에서 H&G(드레스)를 생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고, 중국은 육상에서 필렛으로 가공하여 EU에 재수출하며, 미국은 일본에 연육으로 수출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었다. 그러나 중국이 방역 대책으로 냉동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하자 목적지 구조에 변화가 있었다. 팬데믹이 종식된 2023년 이후로는 중국행 직접 수출 루트가 회복되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필렛의 최종 시장인 EU에 미국이 공급을 증가시키고, 러시아도 '투자 쿼터'를 이용한 고차 가공 어선과 자국 육상 가공으로 필렛 생산을 증대시켜 중국 가공을 통하지 않는 직접 수출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EU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에 여러 외교적 조치를 하면서, 러시아는 국내 시장 공급 확대 추진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태의 국제 가격을 파악하려면

미→일 연육 수출 가격, 중→EU 필렛 수출 가격, 러 국내 H&G 도매 가격 등의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 중 표준이 되는 러시아 국내의 H&G(25cm 이상) 도매가격(블라디보스토크)은 2023년 4월 상순 kg당 80루블까지 하락하였으나, 그 직후 같은 해 4월 11일 90루블까지 회복하였고, 같은 해 4월 18에는 95루블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2개월간 이러한 추이를 이어 가다가 같은 해 6월 20일 kg당 90루블로 하락하였다. kg당 90루블의 가격이 약 8개월간 이어진 후, 2024년 2월 26일에 kg당 84루블로 하락하였다.

올해 4월 1일 포다시 kg당 90루블로 상승하여, 5월 27일에는 kg당 86루블로 소폭 하락하였고, 6월 6일에는 kg당 100루블로 상승한 것이 확인되었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6월 10일자

명태, 대구, 넙치가 러시아 북극으로 이동

지난 반세기 동안, 명태 등 어종은 북쪽으로 크게 이동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와 태평양 및 대서양 북부 지역 사이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따뜻한 바다의 생물들이 더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해양학 연구소장은 말하였다.

그는 197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다양한 자원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베링 해협 북쪽의 일부 북극 어류(넙치, 대구 및 명태)의 수가 증

가했음이 발견되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2019년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태평양 명태가 추코트카 수역에서 발견되었다. 전 러시아 수산 및 해양학 연구소의 태평양 지부 전문가들이 알아낸 것처럼 일부 명태는 겨울에도 이 위도에서 안전하게 생존한다.

* 출처: Taymyrskiy telegraph, 2024년 6월 14일자



러시아 명태 수출 가격, 6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 네덜란드의 항구 제한으로 불확실성 가중

러시아 명태 수출 가격이 지속적인 국제 무역 제한으로 인해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업계 관계자가 말하였다.

러시아 명태어업협회(PCA)의 회장은 유럽에서 러시아산 냉동 명태 필렛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중국 수출 가격도 덩달아 하락하였다고 하였다.

협회장은 지난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해양 산업 컨퍼런스에서 "5월까지 유럽에서 러시아산 명태 필렛 가격이 45% 하락하였고, 중국 시장에서 냉동 명태 가격은 25% 하락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협회장은 "명태 수출 가격은 현재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여 2017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하였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으로의 러시아 어류 및 수산물 공급에 대한 수많은 제한으로 인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말하였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대응으로 광범위한 제재를 계속 받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유럽연합과 영국은 러시아산 흰살 생선에 관세를 부과하였다.

냉동 생선 가공 부문의 양대 축인 러시아산 명태와 대구는 다른 나라에서 공급되는 생선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세계 흰살 생선 시장에 혼란

을 주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가 러시아 국적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 블라디보스토크에 본사를 둔 명태 어업회사인 도브로플로트의 CEO는 네덜란드의 금지 조치가 유럽으로의 명태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하였다.

"다른 유럽 국가들이 네덜란드의 결정을 따를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이다. 러시아 명태는 여전히 전 세계 흰살 생선 시장의 주요 공급원이므로 러시아 명태에 대한 전망은 밝다고 본다."

CEO는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흰살 생선 부문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양식 생선 소비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흰살 생선 대기업인 노레보의 국제 업무 및 홍보 부국장은 러시아 국적 선박의 항구 하역을 금지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공통된 생각으로 보이며,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러시아는 남미와 아프리카의 우호 국가에 공급하는 동시에 EU와 영국의 전통 시장을 유지함으로써 세계 흰살 생선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부국장은 덧붙였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6월 10일자



중국 시장에 대한 러시아 명태 공급 증가 예정

대구의 가격 상승과 어획 감소로 명태 인기 급증

러시아는 중국에 냉동 명태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이며, 향후 몇 년 동안 공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는 중국의 명태 소비량 증가와 러시아 국내산 생선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수산물 소비국 중 하나이며 러시아 생선 수출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 중 하나이다. 또한 러시아는 에콰도르에 이어 중국의 최대 수산물 공급국이다. 2023년 말까지 러시아의 대중국 생선 수출액은 29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 중 약 16억 달러는 냉동 생선이 차지하였다.

명태 어업 협회에 따르면 냉동 생선 카테고리의 주요 수출 순위는 명태(6억 4,200만 달러), 대구(3억 4,500만 달러), 태평양 연어(1억 6,000만 달러), 냉동 정어리(1억 5,300만 달러) 등 4가지이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흰살 생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 수출업체들에게 좋은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러시아는 양식 틸라피아 및 팡가시우스 공급 업체인 외국 경쟁사와 달리 가격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유용하고 고품질 제품인 명태 판매를 통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오늘날 명태는 러시아의 냉동 생선 중국향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러시아는 냉동 명태를 공급하는 주요 공급국으로, 2023년 러시아의 중국시장 명태 점유율은 95%였다."라고 명태 협회장은 말하였다.

현재 러시아 냉동 명태의 가격이 크게 하락하여 중국 국내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양장 신청 수산물 생산자(Yangjiang Xincheng Aquatic Producers) 부사장은 중국에서 흰살 생선이 대중 레스토랑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대구의 가격 상승과 어획량 감소에 따른 공급량 감소도 명태를 중국 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제품으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 출처: IntraFish, 2024년 6월 10일자

러, 현재 어선 73척 건조 중

2021년부터 연간 평균 5~6척 건조

일본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러시아해사당 국산업·건조부문에 등록된 바로는 러시아에서 현재 어선 73척이 건조 중이다.

73척 중 72척은 러시아 자국 조선소, 1척은 터키 조선소에서 건조가 진행 중이다. 러시아 국내 73척 중 28척이 극동 지방에서 건조 중이다.

5월 말에는 투자 쿼터 제2단계에 기초하여 8척의 조선 프로젝트가 새로 승인되었다. 극동 명태, 청어, 대구 등을 대상 자원으로 하는 대형 트롤선 2척, 중형 트롤선 2척, 냉동 냉장 운반선 4척이 계획되어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6월 12일자



RFC “명태 연육 생산, 2028년 16만톤 예상”

2028년까지 약 3배 증가 전망

러시아어업회사(이하, RFC)의 까르부힌 사장은 5월 22일 일본 수산가공기업 도카이전분(東海澱粉)이 주최한 연육 포럼 행사의 강연에서 러시아 명태 연육 관련 전망을 설명하였다.

까르부힌 사장에 따르면, 러시아산 명태 연육의 총 생산량은 2028년에 16만 3,000톤으로, 2023년의 생산량인 4만 7,000톤의 약 3.5배로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이 중 RFC사의 연육 생산량 전망은 9만 8,000톤(2023년 대비 3.3배)으로, 전체의 약 60%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까르부힌 사장은 선상에서 연육 제조가 가능한 자사 최신 트롤선은 현재 5척이 가동 중이며, 2028년 1월까지 6척을 신조하여 총 11척 체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러시아 명태 총어획량 중 RFC의 비중은 2023년 18%였으나, 2028년에는 TAC 예측치인 228만 5,000톤 중 2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

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대형선 신조에 따른 어획량 쿼터 배분이 배경이다.

까르부힌 사장은 RFC의 명태 제품 생산량 비중의 경우, 연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2023년은 RFC의 어획량 34만 6,000톤 중 약 34%에 해당하는 11만 6,000톤을 연육용으로 사용하였으나, 2028년에는 예상 할당량인 50만 5,000톤 중 80%에 해당하는 40만 1,000톤을 연육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까르부힌 사장은 러시아산 명태 연육의 총생산량이 2024년에 전년 대비 1.7배인 8만 1,000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후에도 선박 신조로 계속 우상향하여 2025년에 12만 4,000톤, 2026년에 13만 4,000톤, 2027년에 15만 5,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6월 7일자

러, 중국으로의 수산물 수출 증명서 "전자" 문서화

수산물의 적법성 확인 완전 디지털화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산물의 원산지 적법성 확인 분야에서 디지털 문서 관리로 완전히 전환 예정이다. 인증 시스템은 어획물의 적법성을 보장하는 데 사용된다.

러시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어획물 원산지 증명서를 전자 형식으로 완전히 전환할 계획이라고

러연방 수산청 부청장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였다.

부청장은 수생 생물 위생 감시청도 디지털 인증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전체 시스템이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된다.

* 출처: Fishnews, 2024년 6월 10일자



바렌츠해 대구 2025년 쿼터, 31% 감소

러시아-노르웨이 쿼터 약 31만 톤

노르웨이 해양연구소는 지난 6월 21일 러시아-노르웨이가 공유하는 2025년 바렌츠해 대구 쿼터가 31% 감소한 31만 1,587톤으로 감축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3년 이후로 권고된 쿼터 중 최저치이다.

연구소 측은 일반적으로 연간 쿼터 감소량 한도는 20%이지만, 산란 개체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제한이 해제된다고 설명하였다.

대구 산란 가능 자원은 2013년 이후로 매년 꾸준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쿼터는 지난 2년간 매년 20% 감축되었다.

연구소 측은 “지난 수년간 자원 상태가 좋지 못했지만, 가장 취약한 것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어획 대상이 되는 개체들”이라 말하였으나, 이후 가입되는 개체들의 자원량은 증가세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노르웨이 경매 시장에서 대구 물량 감소가 올해부터 이미 관측되었음을 감안하면, 2025년

에는 대구 공급량이 크게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다.

연구소는 바렌츠해 해덕대구의 내년 쿼터 권고도 최대 10만 6,912톤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대비 24% 감소했던 2024년의 쿼터보다도 16%나 감소한 수치이다.

중국 내 러시아 대구 가격도 상승하고 있지만 노르웨이 대구와의 가격차는 톤당 1,500달러 이상이다.

24주 차(6월 10~16일)에 노르웨이 북부 경매에서 1~2.5kg 대구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는 판매량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소식통은 전하였다.

대구의 경우, 과학자들은 2025년 어획량을 할당량보다 24% 적은(2024년 어획량보다 16% 적은) 10만 6,912톤으로 예상한다.

* 출처: Undercurrent News, 2024년 6월 24일자, Fishnet, 2024년 6월 28일자

러, 추코트카 수역에서 한국인 선원 구조

원거리 수역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안전 치료 서비스 제공

로스텍 국영 항공 구급대가 추코트카 수역에서 한국인을 구조하였다. 트롤 조업선 "Carolina 77"의 선원이 항해 중에 병에 걸렸고 "항공" 구급차가 선원을 병원에 긴급 입원시켰다고 로스텍의 언론 서비스가 보도하였다.

조업선에서 환자를 이송해 달라는 요청은 추코트카의 지역 병원에 접수되었다. 항공 구급 헬리

콥터는 아나디르를 출발하여 40분 만에 현장에 도착하였다. 구조 작업을 위해 트롤 조업선은 해안에 더 가까이 접근해야 했다. 헬기로 도착한 의료진은 이 남성이 뇌졸중 진단을 내렸다. 한국 선원은 즉시 베링고프스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 출처: Fishnews, 2024년 6월 10일자



러시아, 영해 밖 어업권 선언 방법 마련

국제 수역 어업에 대한 제재 완화를 위한 새로운 조치 승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국제 수역에서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어업 쿼터를 선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수산청이 밝혔다. 이는 부분적으로 모스크바의 외교적 고립으로 유발된 조치이다.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현행 수산법 개정안은 노르웨이, 일본, 미국 알래스카주와 국경을 접한 광활한 지역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서 러시아가 독자적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쿼터를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5월 29일 푸틴 대통령이 승인한 개정안에 따라 러시아는 국제 조약에 의해 어업 활동이 규제되지만 국가별 할당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수역에 대해 TAC를 설정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러연방수산청은 개정된 법안이 러시아 어민들이 기존 해양 협약 수역 내 외국 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러시아 어업은 "비우호적"인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로 인해 어업의 효율성 감소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연방수산청은 러시아가 TAC를 설정할 수 있는 수

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북방 어민 연합의 드레베프냐 회장은 러시아는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과 공동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만 국제 어업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에 어획 할당량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러시아 어부들은 국제 수역에서 국가 할당량에 대한 국제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조업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는 IntraFish에 말하였다.

러시아의 EEZ는 15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해안에서 200해리(370km)에 걸쳐 있다.

2년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는 간헐적으로 자국 EEZ 내 어업권 확장을 요구해 왔다.

2022년 11월에는 알래스카에서 회유하는 명태와 청어, 대구를 러시아가 추가로 15만 톤을 잡을 수 있는 베링해의 새로운 어장 계획을 발표하였다.

드레베프냐는 이론적으로 러시아가 잠재적으로 TAC를 설정할 수 있는 협약 지역에는 북대서양 지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출처: Irish Independent, 2024년 6월 4일자



日 쾡치 공해 어업, 전 선박 8월 10일 출어 대형선 출어 앞당겨져...러 조업 올해에도 계속

일본 전국쾡치붕수망어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올해 공해 출어 시작일을 어선의 크기와 관계없이 8월 10일에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대형 어선의 출어 시기가 앞당겨지게 되었다.

평년에는 10톤 이상 20톤 미만 어선이 8월 10일, 20톤 이상 100톤 미만이 15일, 100톤 이상급이 20일에 출어하였다. 올해는 EEZ 내 조업의 경우 같은 날에 출어하지만, 공해 출어는 어선의 크기와 무관하게 8월 10일에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조합 측은 “공해 조업은 후반에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조업시기를 앞당기기로 하였다. 반대의 의견도 있었으나, 어장 등이 변화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도하기로 하였다. 올해의 상황을 봐서 내년 이후의 행보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2020~2022년 동안 조업하지 않다가 2023년에 재개된 러시아 조업은 올해에도 계속된다. 러시아 조업은 근년 어기가 늦어진 것을 반영하여, 작년에 9월 15일이었던 출어 시기를 10월 1일로 늦췄다.

일본은 북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NPFC)의 TAC 10% 삭감 조치를 회피하고 향후 결정될 국가별 TAC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2년 연속 어획량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경영 호전을 위해서도 어가 하락 해소가 급선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여기에는 대만·중국·한국 선박 30척이 공해

어장에서 쾡치 조업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어기는 0세어가 어느 정도 크기가 있었기 때문에, 1세어로서 내유하는 이번 어기가 기대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획과 관련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다.

2023년 여기 일본의 쾡치 어획량은 총 2만 4,433톤(전년도 대비 36% 증가)으로, 3년 만에 2만 톤 이상을 기록하며 근년 들어 계속된 연간 최저 어획량 경신 추세를 벗어났다. 그러나 여기 후반의 어가 하락으로 인하여 2023년 총 어획 금액은 101억 1,700만 7,000엔으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다.

조합 측은 “어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선사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자원 회복의 조짐이 없다면, NPFC에서 어획 한도를 10% 삭감하게 되므로, 일정 수준의 어획량이 성립될 필요성 또한 존재한다. 또한, 2025년 이후 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국가별 TAC가 새롭게 정해질 경우, 2024년 어기의 어획 실적이 근거에 포함된다. 그런 의미에서도 이번 어기의 결과는 중요하며, TAC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도입된 별도어획 할당(IQ)을 잘 운용하면서 이번 어기의 조업 행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합 측은 말하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7월 3일자,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6월 26일자



日 쾡치 어선, 참치 연승어업 겸업화 검증 중

참치용 설비 활용하여 쾡치 초저온 동결 생산

일본 수산기업 이케다수산(池田水産)의 쾡치붕수망 어선 '제35풍진(第35豊進)'호는 일본 수산청이 진행하는 어업 지원 사업인 '돈이 별리는 어업 창설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참치 연승어업 겸업을 검증하고 있다.

어장이 멀어지는 추세인 쾡치어업은 초저온 동결기를 활용하여 선도 높은 제품을 개발한 것 외에, 참치어업으로 선원 장기고용 실현을 시도하고 있다.

일본 전국원양가다랑어참치어업자협회를 사업 시행자로 한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199톤 형 쾡치붕수망 어선을 활용, 5월부터 시드니 연안에서 남방다랑어를 목표로 조업하고, 일본에 귀항하여 붕수망어업 채비를 갖추는 방식이다. 참치용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여, 초저온 동결 쾡치도 생산한다.

올해 여기에는 6월에 남방다랑어 어업이 종료되어, 6월 30일자로 일본 미야기항에 입항, 7월 2일자

로 양륙하면서 4년 차 검증 사업을 종료하였다.

단일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어종이나 어법을 다각화하는 이러한 사례는 일본 수산청 검토회에서도 선행사례로서 다뤄질 정도로 참고가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다수 존재한다.

우선 해당 선박은 199톤으로, 원양어선으로서는 유류장이 작다. 가격이 급등하는 외국이나 양상 급유는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조업 중, 귀항 전의 3회 급유는 불가피하다. 선별부터 동결까지의 전 과정이 수작업이기 때문에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다. 제품의 이동도 인력이 요구되는 공정이 많아 현재의 조업 형태는 선원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점들로 인하여 이케다수산 측은 기계화 도입 및 대형선의 검토가 시급하다고 언급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4년 7월 5일자

러 연구기관 “쾡치 자원, 3~5년 내 남쿠릴 이동 예상”

향후 수년 내 남쿠릴 어장 형상 예측

전러시아해양어업연구소는 쾡치 자원이 향후 3~5년 내로 전통적 어장이었던 남쿠릴 수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중장기 예상을 발표하였다.

표층어의 주기적 역학에서도 이러한 점이 관측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고등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이것을 뒷받침한다고 브니로 측은 설명하였다.

지난 2년간 쾡치의 먹이 회유는 일본과 쿠릴열도보다 훨씬 동쪽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여름~가을 동안 쿠릴열도 북부에서 베링해 남서부에 집중되었으나, 지난해인 2023년에 이러한 움직임이 서부까지 확산하는 변화가 확인되었다.

* 출처: 홋카이도 기선련, 2024년 7월 5일자



CCAMLR, 베트남과 IUU 어업 방지 협력 방안 제안 어획 추적 전자 시스템을 통하여 불법 어획물의 시장 유입 방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는 베트남 정부에 연락해 위원회의 이빨고기 어획증명제도(이하, CDS)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다.

CCAMLR의 어업 감시 및 규정 준수 매니저인 토드 두부아(Todd Dubois)는 베트남 뉴스 에이전시와의 인터뷰에서 CCAMLR 지역에서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하였다.

IUU 어업은 이빨고기 자원을 심각하게 감소시키고 남극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CCAMLR의 보존 목표도 약화하였다. 그는 CCAMLR가 이빨고기에 대해 CDS를 시작하는 등 IUU 어업에 대한 몇 가지 조치

를 취했다고 언급하였다.

두부아는 CDS가 어획물이 항구에 도착한 시점부터 상업적 주기에 걸쳐 이빨고기 추적을 위해 설계된 전자 시스템이라고 말하였다. 회원국이 어획하고 거래하는 모든 이빨고기 어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어획된 이빨고기와 불법으로 어획된 이빨고기를 구별하고, 불법 어획 이빨고기가 세계 시장으로 수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는 베트남이 CDS 참여를 통해 CCAMLR과 협력하기를 원한다면 CCAMLR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베트남이 CDS를 이행하여 협력할 것을 권유하였다.

* 출처: VietnamNews, 2024년 7월 2일자

러시아, 세계 5위 어업 강국

2022년 5개국이 전체 어획량의 40% 차지

FAO는 세계 어업 및 양식업 현황에 관한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2022년 말 기준 전 세계 수생 생물 자원 생산량은 해조류 130만 톤을 포함하여 9,230만 톤에 달하였다. 이 중 멸치 490만 톤, 명태 340만 톤, 다랑어 310만 톤 등 7,970만 톤 등 해상 어업이 주를 이루었다.

2022년 기준 중국 14.3%(1,317만 톤); 인도네시아 8%(739만 톤); 인도 6%(553만 톤); 페루 5.8%(536만 톤); 러시아 5.4%(492만 톤) 5개국

이 전체 상업 어류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2023년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는 536만 톤을 어획하였으며 이는 지난 3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이다. 러시아 측 추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3년은 4위로 예상된다. 러시아는 명태, 청어, 고급계, 태평양 연어 어획에서 세계 선두 주자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노르웨이와 함께 대서양 대구 생산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6월 11일자



FAO “수산물 소비량 12% 증가 예상”

세계 수산업, 또 다른 기록 경신

세계 어업 및 양식 산업은 2022년에 2억 2,300만 톤 이상의 제품을 생산했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이하, FAO)는 밝혔다. 한편, 해조류를 제외한 수산물 생산량에서 어류 양식업이 다시 한번 어획 어업을 추월하였다.

FAO가 발표한 세계 어업 및 양식 현황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어류 양식의 역할 증가가 강조되었다. 이 보고서는 2022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양식업이 자연산 어획 제품의 생산량을 추월했다고 제시하였다.

FAO 공보실은 Fishnews에 2022년 전 세계 어업 및 양식 생산량이 2020년보다 4.4% 증가한 2억 2,320만 톤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1억 8,540만 톤은 수생 동물이며, 3,780만 톤은 해조류이다.

한편, 양식 생산량은 1억 3,090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어류 및 기타 수생 동물 생산량이 9,440만 톤을 차지하였다.

"양식 생산의 40% 미만이 해양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양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을 주지 않고 수생 생물 자원에서 식량 생산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놀라운 성과다."라고 FAO의 수산 및 양식 책임자 마누엘 바랑쥬는 말하였다.

양식 제품의 최대 생산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노르웨이, 이집트, 칠레, 필리핀이다. 이들 국가는 전 세계 양식업 생산량의 89.8% 이상을 차지한다.

FAO 전문가들은 세계 식량 안보 유지에 있어 수산업과 양식업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수생 동물 생산량의 89%가 식용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주로 어분과 어유 생산에 사용되는 간접 소비 또는 비식용으로 사용되었다. 2021년 전 세계 1인당 평균 수생 생물자원 식품 소비량은 20.6kg으로 나타났다.

FAO는 수산업 및 양식업 부문의 생산과 소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생 동물 생산량은 어획량 회복과 상업적 어류 양식의 확대에 의해 2032년까지 10% 증가한 2억 5,0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량은 1인당 21.3kg으로 1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Fishnews, 2024년 6월 10일자



러시아 “중국은 어업분야 전략적 파트너” 표명 수산업 부분이 경제 성장 원동력 역할

6월 8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 경제 포럼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 어업 및 양식업 분야의 무역 및 경제 협력 발전이 논의되었다.

"중국은 어업 분야에서 러시아의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이다."라고 러연방 수산청 부청장은 말하였다.

중국에 대한 공급은 러시아 전체 어류 및 수산물 수출의 거의 50%인 127만 톤을 차지한다(2023년 러시아의 총 어류 수출량은 250만 톤임).

러시아와 중국 간의 협력은 수산물 무역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발전하고 있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와 세계 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상업적 양식업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에 대한 전망

이 매우 밝다. 러시아는 수산업 부문이 성장의 원동력이며 생산량은 중국에 비해 적지만 이미 10년 동안 긍정적인 성장이 관찰되었다(물량 성장률 2배).

동시에 러시아는 담수 및 해양 양식 분야의 세계적인 리더인 중국의 경험에 관심이 있다.

러연방 수산청 부청장은 러시아의 양식을 투자 및 공동 프로젝트 창출을 위한 유망한 분야로 언급하였다.

양국은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의 접경 수역의 어족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어업인력 양성 분야에도 협력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IUU 어업 퇴치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합법적 무역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국제 법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

* 출처: 러연방 수산청, 2024년 6월 8일자

러, 전자조업일지 사용자 위한 챗봇 출시 일일보고서 수령 현황 및 불편 사항 24시간 접수

러 조업감시센터에서는 전자조업일지 작성에 대한 기술지원을 위해 챗봇을 시범 운영한다. 향후 이 피드백 서비스는 기능이 확장될 예정이다.

선박을 통하여 상업적 조업에 종사하는 수산생물자원 사용자는 챗봇을 이용할 수 있다. 챗봇은 시범운영과 디버깅을 거쳐 현재 운영 중인 전자조업일지 기술 지원 채팅방을 대체할 예정이다.

센터는 "챗봇을 통한 문의 제기는 연중무휴 24시간 접수되어 자동으로 등록되며, 이후 요청 상

태를 추적하고 기술 지원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챗봇을 통해 일일보고서 수령 현황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빠른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동시에 센터는 챗봇 작업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 출처: Fishnews, 2024년 7월 10일자



러시아, 정어리 어획량 꾸준히 증가 올해 상반기 어획량 지난해의 두 배 달해

정어리 어획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2023년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이 어획되었다.

2024년 7월 3일까지 극동 어민들은 10만 5,400톤의 정어리를 어획하였으며, 이는 2023년 같은 날짜의 두 배(5만 7,000톤, 218% 증가)에 달하는 양이다. 고등어 어획량은 1,800톤이었다.

러연방 수산청은 원양 어업(정어리, 고등어, 꽁치 등)에 관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러 수산청 부청장 쏘콜롭은 정어리가 러시아 수역과 태평양 공해에서 더 많이 어획하여 매우 좋은 역학이 발생한 것에 주목하였다.

“일본 수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올해 어획량이 저조하다. 동시에 어부들은 배타적경제수역 밖인 북태평양의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찾아야 했다. 이전에는 태평양 공해에서의 러시아 조업선의 어획량은 거의 없었다.”

모니터링센터에 따르면 러시아 EEZ 정어리 어획량은 9만 톤 이상 (2023년 4만 3,000톤), 태평양 공해에서 1만 4,300톤(2023년 0톤)을 어획하였다.

전통적으로 7~8월은 원양 어종, 즉 정어리를 잡기에는 비효율적이라고 간주하였다.

수산 연구소는 남부 쿠릴열도를 포함하여 정어리

어획량이 풍족하며, 조업 기간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어리 어업 지속의 배경에는 경제적 전망도 있다. 틴로 연구 센터 센터장은 어분과 어유의 생산 원료이며 세계적인 인기 어종인 멸치의 어획량이 감소하여 이에 대해 정어리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러연방 수산청본부 협의 결과에 따라 연해주 및 사할린-쿠릴 지부는 어민과 협력하여 조업척수, 생산 계획, 운송 계획을 협의토록 지시받았다. 해상에서 전채와 어획물을 지체없이 항구로 운송하려면 연방 보안국 국경수비대와 관련 사항을 사전에 조정이 필요하다.

수산 연구소 과학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고등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3~5년 안에 꽁치 조업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였다.

2024년 정어리의 예상 어획량은 57만 9,000톤이다. 원양어업(정어리, 고등어, 꽁치 등)은 거의 일 년 내내 태평양 북서부에서 이루어진다.

2023년 쿠릴 수역의 정어리 어획량은 54만 4,000톤으로 소련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7월 3일자



러 아프리카 과학 탐험대, 연방 정부 지위 획득 생물 자원 평가 위한 본부 설립 예정

러시아 연방 정부는 대아프리카 탐험에 러연방수산청을 지원하였다.

이 탐험의 목적은 아프리카 국가 수역의 어족 자원 및 기타 수생 생물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이다.

이 작업은 어업 분야에서 아프리카 대륙 국가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러시아 선단 어업의 지리적 확장에 기여할 것이다.

아프리카 수역에서 러시아 과학자(VNIRO)의 대규모 연구 작업은 약 1년 반 동안 지속될 것이다. 탐험은 2024년 8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 명령에 따라 러연방 수산청은 전 러시아 수산

및 해양학 연구소의 선박을 사용하여 아프리카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있는 수산 생물 자원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연구 탐험을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한 본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러시아 연방 외무부는 탐험 기간 탐험에 참여하는 러시아 선박의 외국 항구 기항 조치 이행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동시에, 관심 있는 연방 행정 당국, 러시아 연방 구성 기관의 집행 기관 및 기타 조직은 탐험과 대중 매체에서의 보도에 대한 지원 제공을 권장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4년 6월 21일자

러 보건부, 아동 대상 어류 섭취 권장 캠페인 실시 어린이에게 영양 권장 사항 제시

러시아 보건부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습관을 대중화하기 위한 사회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당신이 먹는 것을 생각하세요" 웹사이트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직업과 그에 대한 영양 권장 사항이 포함된 담긴 카드가 있다.

미래의 과학자는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하는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생선을 더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디자이너는 많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단백질, 인, 오메가-3 지방산이 필

요하므로 식단에 생선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프로젝트의 저자에 따르면 선원은 근육과 힘이 필요하므로 달걀, 살코기 및 생선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다.

연어, 대구, 명태와 같은 생선은 뇌를 위한 최고 건강식품이다. 오메가-3 지방산은 기억력, 집중력, 정신 유연성을 향상하므로 프로젝트 개발자에도 꼭 필요한 영양소이다.

* 출처: Fishnet, 2024년 7월 5일자



美 5월 수산물 소매 매출, 부진 계속

5월 연휴 및 가격 하락에도 매출 급증 없어

미국의 수산물 평균 소매가격은 2024년 5월에도 하락이 계속되어 수개월간의 하락세를 이어나갔다. 그러나 수산물 매출은 가격 하락과 5월의 미국 연휴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 식품 리서치 기업 210 Analytics에 따르면, 5월 냉동 수산물 소매 가격은 전년도 동월 대비 3.6% 하락하면서 수산물 소매 분야에서 가장 큰 하락세를 기록하였다. 금액 기준 5월 냉동 수산물 소매 매출은 4.6% 감소한 7억 3,800만 달러였다.

신선 수산물 가격은 1.4%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3.1% 감소한 8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상온 보관 수산물 매출액은 2.2% 증가한 3억 1,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가격은 2.2% 하락하였다.

미국 소비자들은 미국 텍사스주 델러스에 본사를

둔 Certified Quality Foods의 운영 부사장 겸 파트너인 Chuck Anderson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지난 1년 동안 인플레이션 상승의 여파에 계속해서 반응하고 있다. Anderson은 “소비자들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식료품점에서 가장 가격대가 높은 선택지 중 하나인 수산물 섭취를 계속해서 줄여 왔다.”라고 말하였다.

210 Analytics 측에 따르면 수산물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신선 수산물 가격을 다른 단백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느낀다. 5월 31일 시점 신선 수산물 가격은 1파운드당 평균 9.49달러이나, 쇠고기는 6.73달러, 돼지고기는 3.22달러, 가금류는 3.08달러이다.

* 출처: Seafoodsource, 2024년 6월 18일자

수입 낚시 미끼를 음식으로 판매한 사건 발생

미끼용 수입 제품은 식품용 검사를 거치지 않아 섭취 시 위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익명의 유통업자가 멕시코에서 낚시 미끼용 냉동 멸치 28톤 구입 후 제주도의 식당에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품범죄수사부는 6월 22일 해당사 임원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식품 판매용이 아니었던 이 멸치는 낚, 카드뮴, 수은, 벤조피렌, 히스타민과 같은 독성 성분의 오

염 가능성을 검사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식품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회사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1월까지 28톤의 멸치를 사고팔아 7,460만 원(미화 5만 4,000달러)을 벌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식당은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4년 7월 10일자



日 1인당 수산물 소비량, 사상 최저치 기록

경기 침체, 엔화 가치 하락, 수산물 가치 상승 영향

일본 수산청의 2022년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22kg으로 196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22년 수치는 2021년보다 3% 감소한 수치이며, 일본인이 연간 평균 40.2kg의 수산물을 먹었던 2001년보다 45% 감소한 수치이다. 이 기관은 보고서에서 1999년 이후 모든 세대에서 어패류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의 감소는 다른 단백질에 비해 수산물의 가격 상승과 식품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에 기인한다. 반면,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22년에 30kg을 넘어섰으며 2011년 처음으로 수산물 소비량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일본의 국내 소비용 수산물 총공급량은 2012년 대비 23% 감소한 643만 톤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505만 톤은 인간이 소비한 양으로 10년

전의 661만 톤보다 감소한 수치이다.

일본의 수산물 자급률은 1964년 113%로 정점을 찍은 후 일본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 연속 53%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2000년대 초반 이후 변동이 없다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3% 포인트 상승한 56%를 기록하였다.

신선 생선 및 수산물 소비자 물가지수는 2015년 이후 일반 식품 물가 상승률과 함께 크게 상승했으며, 2023년 지수는 전년 대비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승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엔화 급락으로 인한 수입 가격 상승, 일본 국내 생산량 감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23년 신선 생선 및 수산물에 대한 1인당 지출은 전년 대비 4% 감소하였다.

* 출처: Dalekayaokraina, 2024년 6월 14일자

노르웨이, 러 어선 입항 제한 강화

노르웨이 항구 정박 기간 최대 5일로 설정

노르웨이 정부는 7월 5일자로, 러시아 어선의 자국 항구 입항 제한을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러시아 어선의 입항이 부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세 항구에 대하여 최대 정박 기간을 5영업일(휴일 포함 최대 7일간)로 제한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후 노르웨이는 러시아 어선 입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트롬소, 바츠퍼

요르드, 키르케네스의 세 항구에 한정하여 기항을 인정하고 있었다.

이번 제한 강화로 최대 정박 기간 설정 외에 세 항구에서 경찰 단속 활동도 강화될 예정이다. 규제 강화에 대해 노르웨이 정부는 "조기에 발효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4년 7월 10일자



중국 연어 가격 하락세 지속

중국의 수요 감소와 노르웨이의 공급량 증가 원인

중국 내 도매 연어 가격은 26주(6월 24일~30일)에도 계속 하락하였으며, 노르웨이 공급 강세와 중국의 수요 약세로 인한 하락세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광저우의 한 수산물 판매업자에 따르면, 6월 24일 노르웨이산 내장 제거 연어 6~7kg(13~15파운드) 가격은 지난주 대비 kg당 9위안(1.24달러) 하락한 88위안을 기록하였다. 현재 노르웨이의 공급업체 가격은 약 80위안으로 전주보다 저렴하다.

같은 크기의 칠레산 연어 가격도 5월 말부터 중국 시장을 휩쓸고 있는 노르웨이산의 가격 인하로 인해 5위안 하락한 85위안을 기록하였다.

광저우의 한 딜러는 "우리는 kg당 90위안 이상에 주문한 생선을 판매하고 있어 적자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연어 가격도 이번 주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다.

딜러들은 노르웨이산 대형 연어의 꾸준한 유입이 중국의 수요 부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7월까지의 가격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중국은 올해 1분기에 2만

2,534톤의 연어를 수입하였으며 2023년 3분기는 2만 1,903톤을 수입하였다.

1분기 수입액은 2억 9,622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하였지만,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 증가하였다. 공급 국가는 노르웨이가 주요 공급국이며 호주와 칠레가 그 뒤를 잇고 있다.

2023년 중국의 전체 연어 수입액은 44% 증가한 10억 6,000만 달러이며 물량은 63% 증가한 8만 129톤이었다. 이중 노르웨이로부터의 수입액은 2022년 대비 47% 증가한 5억 3,880만 달러 물량은 67% 증가한 3만 9,435톤으로 증가하였다.

칠레는 2023년에 호주를 제치고 2대 공급국 자리를 차지하였지만 2024년 1분기에는 상황이 역전되었다. 2023년 중국의 칠레산 연어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억 2,266만 달러, 물량은 159% 증가한 1만 7,282톤이었다.

2023년 중국의 호주산 연어 수입액은 1억 6,348만 달러로 전년 대비 5%, 물량은 1만 4,152톤으로 23% 증가하였다.

* 출처: Fishery.ru, 2024년 6월 28일자

원양산업 정보 및 광고 접수 안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원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원양산업지에 광고(B5 규격, 컬러 및 흑백)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유료). 송부해 주시는 내용은 검토 후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美 인신매매 평가, 대만·태국 높은 순위 유지

NGO,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에 비판

미국 국무부는 최근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이하, TIP)를 발표한 가운데, 대만과 태국의 순위를 높게 유지해 이에 대하여 많은 NGO가 비판하고 있다.

TIP 보고서는 각국의 공급망(supply chain)에서 강제 노동과 인신매매가 얼마나 만연한지에 따라 개별 국가를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 1등급(Tier 1)이 가장 우수하고 3등급(Tier 3)이 가장 낮음

인권 NGO인 Global Labor Justice(이하, GLI)는 대만을 1등급으로 분류하고 태국을 2등급으로 유지 시킨 결과에 대하여 미국이 양국의 인권 침해를 간과한 조치임을 강조하며 크게 비판하고 있다.

GLI에 따르면 대만과 태국은 지속적으로 노동자 인권을 탄압하고 있어 지난해 2023년 TIP 보고서부터 많은 NGO들이 태국 및 대만의 등급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한 결과임을 강조하였다.

대만 및 태국은 원양어선에 제대로 된 Wi-Fi를 제공하지 않아 선박에 승선한 선원들은 최대 10개월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

인도네시아 선원 단체의 아메드 무드자키르 의장은 "Wi-Fi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강제 노동을 방지하며 바다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정신적 안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주 노동자의 노조 결성을 금지하는 태국 법률에 대해서도 태국을 2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인 2등급 감시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린피스와 같은 NGO 또한 Wi-Fi 비상용화 등 원양어선의 인권 문제를 문서화하며 대만의 수산물 부분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촉구하였다.

* 출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 월간 동향 6월호

英, MPA에서 유해 저층 어업 지속

지속적인 불법 조업 미처벌

2023년 영국 해양보호구역(MPA)에서 기록된 유해 저층 트롤 어업이 10척의 선박에 의해 수행되었지만, 영국에 신고된 선박은 한 척도 없었다.

2023년 영국 해양보호구역(MPA)에서의 유해 저인망 어업 활동의 25% 이상이 영국에 신고되지 않은 10척의 선박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 선박은 의심되는 저인망 어업의 27%를 담당하였다.

글로벌피싱위치 데이터를 사용한 오세아나 UK

에 따르면, 2023년 영국 MPA에서 약 10만 시간의 상업 어업이 이루어졌으며, 그중 3만 3천 시간이 저인망 어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나 UK는 정치권이 생물 다양성과 기후 보호에 중요한 해양 생태계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해로운 저인망어업을 모든 MPA에서 금지할 것을 촉구하였다.

* 출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 월간 동향 6월호



기후로 인한 어류 이동이 문제 일으킬 수 있어

경쟁 및 분쟁이 심화 예상됨에 적절한 협력 필요

세계자연기금(WWF)의 해양 미래 프로젝트가 기후로 인한 어류 이동이 정치적, 사회적, 재정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지역들을 파악하였다.

2023년 11월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어류 이동으로 인한 해양 분쟁 또는 식량 불안정의 위험에 처한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지역으로는 북극, 남중국해, 서중태평양이 있으며, 북극은 얼음이 녹으면서 러시아, 중국, 미국, 노르웨이 간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콰도르는 예전부터 우려 국가로 지목되었는데, 지중해 동부와 서부에 심각한 어족자원 감소와 열약

한 보존 상태로 인한 적극적인 분쟁이 없었음에도 위험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그리스, 이탈리아, 터키와 같은 국가들은 배타적 경제수역 간의 선박 이동을 분쟁 없이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은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프로젝트는 어업 이동 데이터와 사회 경제 및 안보 정보를 결합하여 위험지역을 정의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어족자원의 변화가 어떻게 경쟁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지 강조하였다.

* 출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 월간 동향 5월호

공해 조약이 발효하려면 추가적 비준 필요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생물 다양성 보호 필요

공해 조약으로도 국가 관할권 이원지역 생물다양성(BBNJ) 협약의 시행이 가까워지고 있으며, 각국은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준비위원회의 일환으로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 위해 협의한다.

약 20년간의 유엔 회담을 거쳐 2023년 6월 채택된 공해조약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하고 해양 보존 기금을 늘리며 해양 유전자원을 규제하기 위해 최소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90개국이 서명했지만, 이 조약을 공식적으로 비준한 국가는 7개국에 불과하다. 공해 동맹과 다른 비정부기구들은 2025년 6월까지 조

약을 완전히 비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24년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회의에서는 해양 유전자원, 지역 기반 관리, 환경 영향 평가, 역량 강화, 해양 기술 이전 등 조약의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다.

한편, 네이처에 실린 한 논문은 조약 이행에 있어 기후변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후 변화 속에서 공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 관리, 조정된 보존 계획, 과학적 역량 공유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제안하였다.

* 출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 월간 동향 6월호



오징어

조성식

먹물이 마른지 오래
 바다에 대한 기억은 이제 없다
 사지를 틀켜주던 대나무도 몸 안의
 뼈로 박히고 간간히 풍겨오던
 소금기 짙은 갯내도
 몸 밖에서 하얗게 분처럼 말랐다
 가스 불에 몸을 던져도
 뜨거운 쪽으로 기꺼이 몸을 말아
 나를 태우는 것까지 등글게 감쌀 줄 아는
 아름다운 죽음을 알았다
 비 젖은 속을 소주로 달래는
 노동자의 입안에서
 뱃머리를 닳은 두툼한 사람의 손에서 찢겨
 손에서 손으로 건네는 안주가 되어
 잇몸 약한 사람의 어금니가 되어
 곱씹으면 씹을수록 단내 나는
 죽음을 알았다





6월 오징어 국내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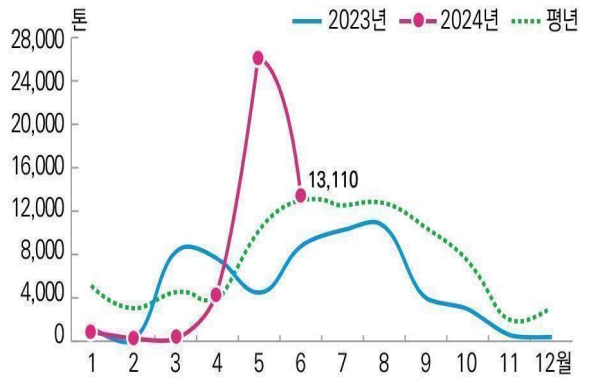
전월 대비 생산량 50% 감소, 수입량 3% 감소

□ 생산동향(6월 오징어 생산량, 전년 대비 증가)

6월 오징어 생산량은 1만 3,110톤으로 전월 대비 49.5% 감소하였으나, 원양산 오징어 어황 호조로 전년 대비 52.6% 증가하였다.

연근해산 오징어 생산량은 1,619톤으로 금어기가 해제됨에 따라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17.3% 적었다.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1만 1,491톤으로 전월 대비 54.6% 감소하였으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73.3%, 13.8%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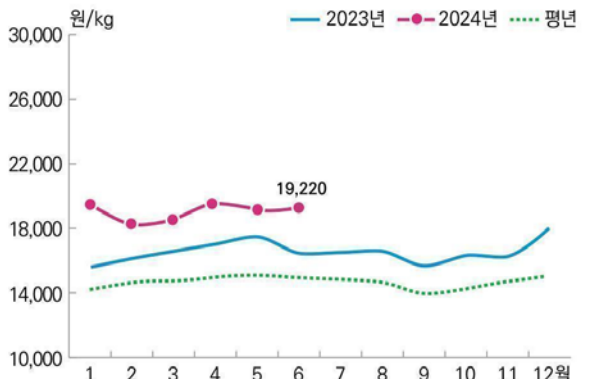
6월 원양산 오징어 어획량은 326톤으로 남서대서양 채낚기 조업이 마무리되며 전월 대비 91.1% 감소하였다. 한편, 6월까지 원양산 오징어 누적 어획량은 5만 9,264톤으로, 어기 초 부진했던 어황이 2월 말 이후 호황을 보이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94.7%, 57.8% 많았다.

□ 가격동향(6월 냉동 오징어 소비자가격, kg당 19,220원으로 전월과 비슷)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2,819원이었으며, 어획물 크기가 작고 품질도 좋지 않아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8.2%, 37.1% 하락하였다.

오징어(냉동) 도매가격은 kg당 14,787원으로 전월 대비 3.2% 하락했으나,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29.0%, 38.4% 높았다.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19,220원으로 정부 비축수산물 방출과 대형소매점 할인행사가 이어지며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한편, 전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16.0%, 29.0% 높았다.



□ 수출입동향(6월 오징어 수출량, 전월 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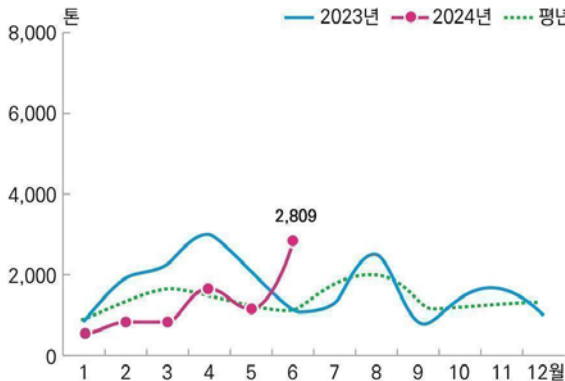
6월 오징어 수출량은 2,809톤으로 전월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년 및 평년보다도 많았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2,304톤)과 미국(305톤)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중국으로 냉동오징어 수출(1,569톤)이 전월(99톤)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1,657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1,021톤), 조미오징어(85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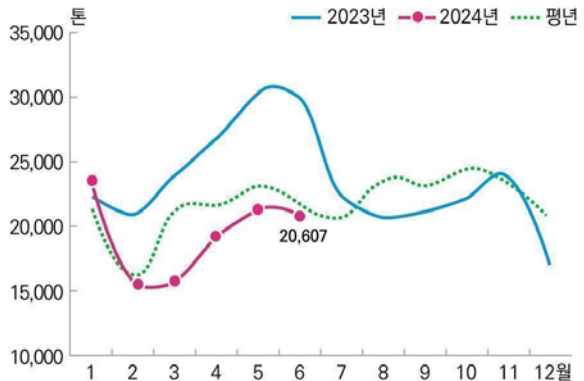
6월 오징어 수입량은 2만 607톤으로 전월 대비 2.7% 감소했으며, 전년 및 평년 대비 각각 31.1%, 4.4% 적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산이 1만 1,020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칠레(3,162톤), 아르헨티나(2,158톤), 대만(1,484톤) 등의 순이었다.

제품 형태별로는 냉동오징어(1만 3,602톤), 조미오징어(3,283톤), 기타(조제 및 저장처리) 오징어(3,073톤), 건조오징어(641톤) 등의 순이었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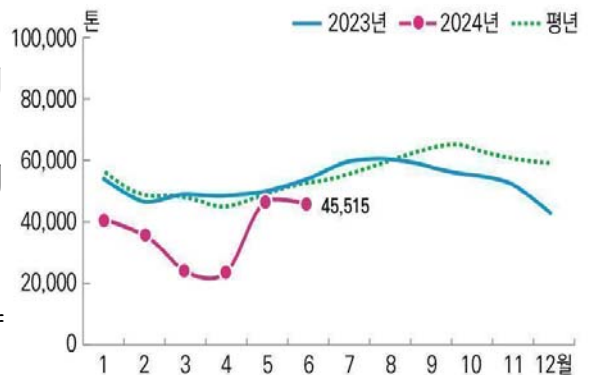
□ 재고동향(6월 오징어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6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4만 5,515톤으로 전월 대비 3.1% 감소하였다.

이는 금어기 해제로 연근해산 생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원양산의 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전년 및 평년보다도 각각 16.5%, 12.7% 적었다.

7월에도 원양산 반입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재고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KMI 수산관측 6월호



6월 명태 국내 동향 전월 대비 수입량 2% 감소, 소비자가격 6% 상승

□ 생산동향(6월 말까지 반입량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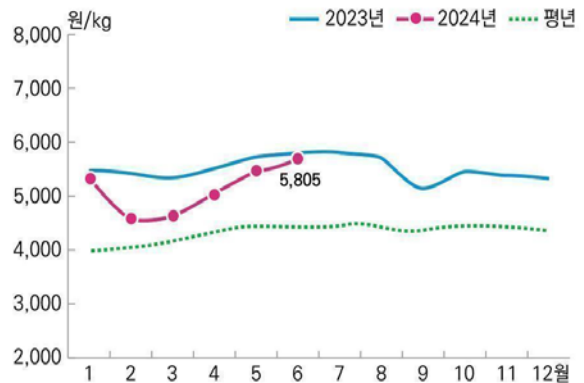
원양명태 트롤조업선은 6월말까지 4,341톤을 어획하여 러시아수역 쿼터의 19.7%를 소진하였다.

□ 가격동향(6월 명태(냉동) 도매가격, 전월과 비슷한 kg당 2,353원)

6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kg당 2,353원으로 전월과 비슷하였다.

그러나 '러-우' 사태로 평년에 비해 높은 가격 수준을 보였던 전년 동월보다는 8.5% 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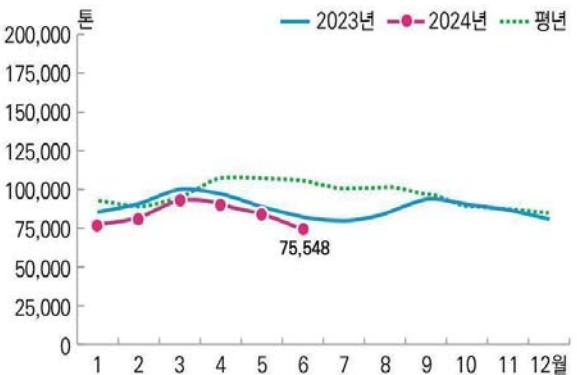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5,805원으로 일부 대형소매점의 할인율이 줄면서 전월 대비 6.1% 상승하였으나, 지난해와는 비슷하였다.



□ 재고동향(6월 재고량, 전월 대비 감소)

6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수출 증가 및 수입 감소로 전월 대비 10.1% 줄어든 7만 5,548톤이었다.

지난해 및 평년보다는 각각 8.5%, 29.5% 적었다.





□ 수출입동향(6월 명태 수입량, 전월 대비 감소한 2만 1,259톤)

6월 명태 수출량은 4,624톤으로 전월 대비 33.7% 증가하였으나, 전년 및 평년보다는 각각 24.8%, 22.8%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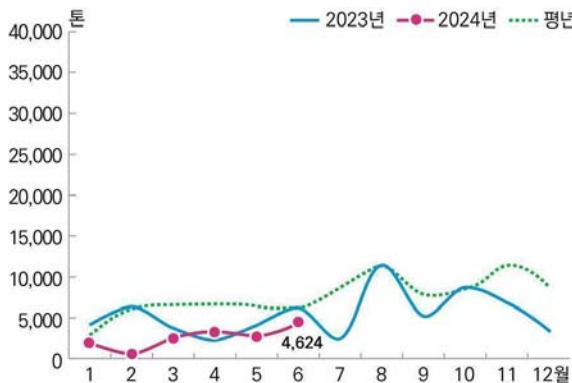
국가 및 제품 형태별로는 태국으로 냉동연육 1,531톤이 수출되었고, 중국으로 냉동필렛 1,164톤, 냉동제품은 중국 947톤, 베트남 207톤 등이 거래되었다.

명태 수입량은 전월 대비 2.3% 감소한 2만 1,259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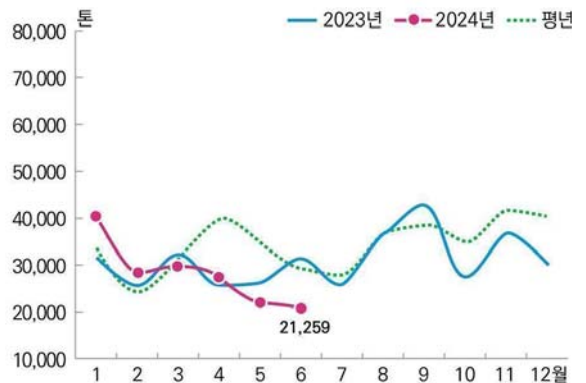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도 각각 32.5%, 26.5% 적은 양이었다.

미국산 냉동연육이 8,151톤으로 가장 많았고, 러시아산 냉동필렛 4,721톤, 러시아산 냉동제품 1,409톤 등이 수입되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 명태 수입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관측 7월호

바다의 파수꾼 '옵서버' 모집 2024년에 활동할 옵서버 8명 신규 채용

우리나라 원양조업선에 승선하여 불법조업을 감시하고 어종 및 어획량 확인 등 과학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옵서버(Observer)' 8명을 모집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61명의 옵서버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하거나 과학적 수산자원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옵서버는 ① 19세 이상의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② 전문대학 이상에서 수산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③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④ 선박 승선이 가

능한 자가 될 수 있다.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교육 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2주간 신규 옵서버 양성 교육을 받은 후 역량평가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하면 옵서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옵서버 자격을 취득한 자는 한국원양산업협회 회원사 소속의 원양조업선에 승선하게 되며, 1회 승선 시 3~6개월 근무, 1일당 미화 210달러의 보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www.fira.or.kr)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11차 SIOFA 총회, 서울에서 개최 의장국으로 남인도양 수산자원의 지속가능 이용에 기여

7월 1일(월)부터 5일(금)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제11차 남인도양수산협정(이하, SIOFA) 당사국총회」가 개최된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이번 총회는 당사국 및 협력적 비당사국, 조업참가국 대표단 외에도 옵서버 기구, 관련 업계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남인도양의 저서어류 관리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최근 해양자원 보호 필요성과 이행관리의 중

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SIOFA 관할 수역 내 해저보호구역 관리 강화 방안과 선박 등록부 개선 방안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수산물 방사능 분석 검사 과정을 참관하며, 원산지표시 관리 전담팀과 수산물 판매 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이행 점검 활동도 함께 할 예정이다.